

<제 6 부> 인사·홍보·문화

公正人事'가 정도경영과 은행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우영⁸⁷⁾

1993년 4월 1일, 나는 우리 기업은행 16대 행장으로 취임하여 1996년 2월 9일까지 재직했다. 행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은행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리 1만여 기은 가족의 사기를 북돋는 데 열과 성을 다했다. 한편으로는 소외된 중소기업들 내 가족처럼 돌보면서 자금·기술·인력·판매에 이르는 모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업은행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정부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동장에 이르기까지, 또한 입법·사법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조직들의 책임자가 있다. 경제·사회분야에도 대기업·중소기업들의 수많은 CEO들이 있다. 정부·민간부문의 수많은 CEO들 모두 스스로 맡고 있는 조직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조직들이 성장·발전하는 것이 바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왔다.

한 조직이 발전하기 위한 요체는 바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직하게 열과 성을 다해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직책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름 아닌 '공정한 인사'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조직원들은 꿈을 갖게 되고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경영철학 아래 3년간 근무했던 기업은행! 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근무했던 그 시절의 일 중 잊히지 않는 몇 가지 기억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충격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1993년 8월 12일, 정부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8월 19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인 효력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정부(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 극비로 긴급은행장 회의를 소집하였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금융실명제를 즉각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재무부장관 주재 회의를 마치고 오니 저녁 7시였다. 그 시간까지 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자금난이 닥치겠구나,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우리 기업은행의 역할이 이 단계에서 더욱 절실히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은행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문서내용은 대체로 이러했다.

87) 한국은행자금부장, 이사, 부총재, 1993년 기업은행장, 1996년 초대 중소기업청장 역임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자금문제로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체 소재지에서 사방 500m 이내에 기업은행 어느 지점이든 간판이 보일 터이니 저의 명의로 된 이 편지를 들고 가장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찾아가십시오. 금융실명제로 인한 자금애로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찾아가셔서 자금상 애로와 문제점을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을 들고 기업은행 각 지점을 찾아온 중소기업 경영자는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찾아온 기업체 사장들은 대다수가 도움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했다. 지금도 그 기억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당시 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자금난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무려 수백 통이나 받았다. 그토록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그 당시의 뿌듯했던 보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녹색환경신탁통장 개발

녹색환경신탁은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단체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상품이다. 우리들의 터전인 환경보전을 위해 광범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코자 한 것이다. 즉 신탁가입자가 세후이자 수령액의 1%를 기부하고 은행은 예금자가 출연한 금액의 2배를 출연, 총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녹색환경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이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상품이 개발된 것은 중부지역본부 박종권 과장의 건의 덕분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환경관련단체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건의는 다음과 같았다.

"지구환경보전은, 우리는 물론 후손을 위해서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 오신 행장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한다면 기업은행의 역할은 더 막중해질 것입니다."

나는 박종권 과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관련 상품개발을 지시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93년 6월 6일부터 판매 개시된 녹색환경신탁통장이었다. 이듬해 2월 3일에는 신탁수익금 2,422만 원을 환경처장관에게 기탁하여 환경보전범국민추진협의회에 전달되도록 했다. 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했다.

덕분에 나는 청와대에 가서 녹색환경신탁상품을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통령은 브리핑을 꼼꼼히 들은 이후 그 자리에서 이 상품에 가입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회창 당시 국무총리, 이시윤 감사원장, 홍재형 재무장관, 김덕 안기부장, 김두희 법무장관, 박윤훈 환경처장관 등 각부 장관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은 물론 삼성 현대 포철 한전 등 대기업체들, 각급기업체,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줄지어 가입하면서 1996년

에는 잔액이 3,536억 원에 이르렀다.

2010년 현재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환경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17년 전에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합한 상품을 개발·환경보전에 공헌하고 기여한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낀다.

한편, 녹색환경신탁기부금은 1994년 2월 3일부터 2007년 7월 20일까지 11회에 걸쳐 총 누계 31억3,7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나라 환경보전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기부처는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인데 환경보전 범국민추진협의회, 환경보전협회, (재)한국환경 민간단체진흥회, (사)한국자연 보전협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용카드의 활성화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경영의 밑받침은 수익이다. 경영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어느 조직이나 기관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찾다가 신용카드업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 착안했다. 사실 나는 신용카드 활성화에 목숨을 걸었다고 할 만큼 직원들에게 카드업무를 독려했다. 당시 300여 개 지점을 순방할 때마다 카드업무 활성화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우선은 카드숫자를 늘리고 다음으로는 카드 사용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재삼재삼 강조하였다.

후속조치로는 매달 지점의 카드소지자 숫자와 카드사용금액을 집계해보도록 조치했다. 또한 카드사용금액이 월 100만 원 이상인 고객을 추려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게끔 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애용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권유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금도 월 300만 원 이상 우리 기업은행 카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지점장에게도 감사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카드 개설 고객에게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사용자는 더 소중한 고객임을 인지했으면 한다.

공정한 인사

'인사는 만사'라고 말이 있다. 우리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사는 감사(監事)외에는 전무 이하 직급 모두를 행장이 임명한다. 행장 고유의 권한인 것이다. 그런데 취임해서 살펴보니 1년 이내에 임기가 도래하는 임원이 5명이나 되었다.

은행은 서비스업이라 하는데 그 말은 곧, 사람이 하는 일임을 뜻한다.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드는데 좋은 원자재를 써야 하고 최신기계를 도입해야 하지만 서비스업인 은행은 좋은 직원을 써야 한다. 직원들이 기분 좋게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은행장의 임무인데, 그러자면 공정한 인사가 선결요건이다. 누가 봐도 능력에 따른 인사여야 한다. 청탁에 의한 인사라는 소문은 절대 금물이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 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비밀이 없다는 뜻이다. 청탁에

의한 인사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어차피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인사청탁이 정서요, 사회적인 관례라는 인식이 팽배에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시 재무부 홍재형 장관을 찾아가서 인사에 관한 나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 인사에 관여하거나 청탁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장관은 흔쾌히 동의했다. 청와대 문희갑 경제수석에게도 찾아가고 안기부 오종소 차장에게도 찾아가서 같은 말을 했다. 모두 ‘이 행장 소신껏 하시오’라면서 동의해주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임원의 임기만료 시점이 가까워진 어느 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호출받은 것이다. ‘인사압력이구나’하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각오하고 은행장 사표를 써서 들고 갔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청탁 압력이었다. 사표까지 써 들고 간 마당에 한 마디 안 할 수 없었다.

“나라가 잘되려면,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생업에 힘써야 합니다. 각급 조직이 나름대로 그 구성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업무에 임하면 그 조직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야만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정도경영은 인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계속 그 인사를 주장하신다면 나는 은행장을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제수석은 나를 뻔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 후 나는 5명의 임원 인사를 소신껏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후배 은행장들이 취임할 때마다 나는 공정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인사만 확실히 하게 되면 은행장 임무의 90%를 달성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가 인사청탁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기관장을 파면시킬 정도의 후진국은 아니니 안심하고 소신껏 하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와 같은 공정한 인사 전통이 이어지면서 오늘날 기업은행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확신한다.

은행원의 친절은 양방향 고객 모두에게

일반 기업체나 제조업체는 기계·원자재·노동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낸다. 이것으로 직원급여·주주배당·세금납부 등 기업체 살림을 꾸려간다. 은행의 원자재는 예금이요, 제품은 대출상품이다. 이것을 팔아 이자를 받고, 예금과 대출마진을 가지고, 직원급여·주주배당·세금납부 등의 경제행위를 한다.

광복 이후 1993년까지 우리나라의 항상 대출은 초과수요상태를 지속해왔다. 그러니 원자재조달(예금고객)에만 신경 쓰고 제품을 사용하는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마치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인식들이다.

TV생산업체에게 TV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이 고맙듯이, 대출고객은 은행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고객들이다. 그러니 대출고객에게 더욱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싶다.

기은상호신용금고 인수 배경

송탄상호신용금고가 부실화되자 재무부는 기업은행에 이를 인수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인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재무부 담당자에게 인수가 어렵다고 말하자 별별 악소문이 돌리고 기업은행 실무자들은 죽을 맛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재무부 담당자들은 어차피 월급쟁이였다. 기업은행에서 흔쾌히 인수한다고 상급자에게 보고해놓은 마당에 이제 와서 뒤집는 것도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 싶었다. 그런 생각 아래 인수를 승낙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신용금고의 본점이 경기도 송탄시에 있어 영업신장에 한계가 있으니 안양에 지점개설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리하여 기은상호신용금고 안양지점을 설치하면서 송탄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였다.

IBK 자행출신 은행장 배출에 기여

그간 기업은행은 설립 35년이 되기까지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내가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청와대 구본영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다. 조선히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가보니 중기청 발족과 초대청장 발탁 배경 등을 설명해 주었다. 먼저 중기청장 발령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한 후 나는 이렇게 부탁했다.

“기업은행이 설립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행 출신 행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외부인사가 은행장을 맡아왔지만, 계속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기업은행도 자행 출신 은행장이 나와야 합니다. 직원도 열심히 하면 은행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적격자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현직 ○○○ 씨를 적격자로 추천합니다.”

경제수석을 만나고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사방팔방에서 외부인사들의 전화가 밀려왔다. 후임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전화였다. 모두들 쟁쟁한 자리에 있는 유력자들이었는데 대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내 후임에 기업은행 출신 은행장이 배출되었다. 이 또한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퇴직 기은인 활력의 샘터, 기은 동우회

최창남⁸⁸⁾

오랜 가난을 떨쳐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새 역사를 쓰고자 시작했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이름도 생소한 산업화에 불을 당기는 불쏘시개로 출범한 우리들의 모행 기업은행이 2011년, 마침내 창립 반세기의 생일을 맞이하였다. 기업은행에게 지난 반세기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살아온 세월이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다 해온 기은인들의 애환과 땀방울로 이어진 나날이었다.

짐승은 모르는 게 고향이지만 사람은 못 잊는 게 고향이라고 한다. 50년 역사를 갖게 된 기업은행은 우리 기은인들에게 청춘을 불살랐던 일터요 영원한 마음 속 고향이다.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도전하여 일궈낸 성과, 궂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늘 함께 하며 상경하애의 끈끈한 전통을 다져온 우리 퇴직 기은인들은 재직시 맺은 귀한 인연들을 소중히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그렇게 열려진 우리들의 사랑방이 있으니 ‘기은 동우회’가 그것이다.

모행의 역사가 50년 공든 탑이듯 동우회의 역사 또한 세월의 나이테를 소중히 다져왔다. 동우회는 1973년 6월 23일 박동규 초대 행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원 26명이 모여 발족하였다. 그 사이 38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벌써 창립 당시 회원은 거의 타계하시고 생존회원은 한 분만이 생존해 계신다.

그동안 닦아온 우리 동우회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장 발전해 왔다. 2011년 2월 말 현재, 회원 수는 특별회원 394명을 포함해서 총 1,248명에 이르며, 기금 총액은 1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행의 애정 어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세월 속에서 1988년, 1994년, 199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기금증강운동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정회원은 물론 현직에 있었던 특별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총 3억5,000여만 원의 기금이 확충되었다. 특히 모행의 상설운동부 해체에 따라 기은체육동호회가 보유하고 있던 체육발전기금 3억3,000여만 원이 2001년 동우회기금으로 이전됨으로써 동우회 살림규모는 더욱 튼튼한 기반 위에 올라섰다.

88) 1967년 입행, 반월서지점장, 구로동지점장 역임, 1998년 퇴직

이는 사방팔방에서 흘러온 강물이 결국 바다로 모이듯 언젠가는 모두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기은인들의 염원과 정성이 이루어낸 결실이라 할 것이다.

동우회는 박동규 초대 회장 이후 김용운, 김원, 주일, 김승경 회장을 거쳐 현재 최기혁 전임 부행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에 지회를 두고 있다.

인원과 기금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각종 내실 있는 행사로 회원들의 참여의식도 날로 더해져 정초의 신년다과회를 시작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약 9,000만 원 전후의 연간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우회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회의 바둑대회, 4회의 등산대회, 2회의 테니스대회, 2회의 골프대회 등 십여 차례에 걸쳐 연 인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서클 활동은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다.

우리 동우회에 지금 90세를 넘은 회원들이 15분이요, 특히 조우동 회원은 2010년 11월, 백수(白壽)를 맞이하여 동우회에서도 회원 중 첫 백수 탄생을 축하드렸다. 앞으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령사회를 살게 된 우리들에게 정년 이후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고, 퇴직 후 인생을 어떻게 외롭지 않고 건전하게 지낼지 숙제가 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은 동우회는 회원 모두에게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요, 사랑방으로서 활력의 샘터가 되고 있다. 동우회 참여를 통해 서로의 친교를 유지함은 물론 작게나마 모행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언제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이 사회의 현역으로 살아가는 나이든 청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은동우회 집행부 구성 및 서클 책임자 (2011.2.28 현재)

본부: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1번지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4층

전화: 02-766-5713

홈페이지: www.ibkfr.com

동우회소개. 동우회원소식(자녀혼사 경조사안내). 동우회행사. 동아리광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우회소식지. 포토갤러리. 기업은행 소식

▲ 집행부

회장 : 최기혁

부회장 : 신순호, 한철수, 한인식, 이택주, 김청일

감사 : 노철호, 정상철

상무이사 : 최창남

이사 : 손갑상, 조성태, 유윤상, 신필영, 나광, 최충기, 지창길, 이재진, 양형진,
신익철, 유덕수, 김성근, 김완표, 이동열, 이태화

총무 : 성연택

부산지회장 : 이재문

대구지회장 : 안홍우

광주지회장 : 김종영

대전지회장 : 조문호

▲ 서클부서와 책임자

바둑부장 : 유윤상. 연간 4회 바둑대회 개최

등산부장 : 김완표. 연간 4회 등산대회 개최

테니스부장 : 이동열. 연간 2회 테니스대회 개최

골프부장 : 나광, 유덕수. 연간 2회 골프대회 개최

[제6부. 인사·홍보·문화] Story_3

해외학술연수 1호, 해외박사 1호 배경일 전 이사와의 대담

배경일(前부행장, 현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금융공학대학 원장)

- 대담 : 50년사 편찬위원 구자갑, 동 민주현
- 장소 : 방배중앙지점
- 일시 : 2010.8.3. 15:00-17:00

Q1. 당행에서 근무하다가 학업강도가 세다는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한지도 꽤 오래된 시점에서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 졸업 후 약 8년에 걸쳐 군복무를 마치고 은행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책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유학길에 오르니 기대감과 설렘도 있었습디만, 두려움도 앞섰습니다. 환승하기 위해 LA공항에 내렸는데 이국땅과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갑작스레 밀려 왔습니다. 제발 잘 마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Q2. 실제 학업을 시작하니 어떠했습니까?

- 학기를 시작하기 전, 모든 신입생은 수학시험을, 그리고 비영어권 신입생들은 영어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도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강의내용 중 대학에서 배운 것은 거의 없었어요.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숙제를 주었는데, 읽어보니 답은커녕 무엇을 묻는지 질문 자체를 알 수 없더군요. 거의 밤을 샀지요. 묘한 것은 자꾸 보고, 이 책 저 책 읽어보니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지나 학생들과 이야기 해보니 수강생들 중에 약 1/3은 2학년들이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 중에 치르는 이른바 자격시험(Qualifying Exam 또는 Q Exam이라고 함)을 통과하지 못해 재수강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해 시험보는데 5월에 한번, 8월에 한번 기회를 두 번 주었습니다. 둘 다 실패하면 1학년 과목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해 5월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이때도 실패하면 학교를 떠나야 한답니다. 저는 1학년 마치고 5월에 미시경제학 시험은 통과하였으나 거시경제학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열심히 공부한 끝에 8월에 합격해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Q3. 학술연수를 떠난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제도도입 후 첫 경우라 생소했을 텐데요.

- 1980년 7월로 기억됩니다. 공람 문서 중 해외학술연수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격은 미국 50대 이내 대학의 경제학, 또는 경영학 석사과정 입학허가서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근속이 필요했고, 부서장 추천도 요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행된 제도라 신청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문서를 본 그 날 퇴근길에 TOEFL과 GRE책을 사서 TOEFL 새벽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다시 6개월 후 1981년 1월에 같은 내용의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해 2월경 입학허가서를 받은 몇 개 대학 중 아이비리그로 명성 높은 코넬대학을 선택하여 학술연수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유일한 신청자였지요. 당시 박성상 은행장의 배려와 연수부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Q4. 당초 은행에서는 석사과정까지만 연수파견한다는 조건이었는데 박사는 어떻게 마쳤는지요?

- 당초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학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교에서도 장학금제도가 있어 박사까지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석사과정을 마치면 귀국해서 근무해야 하니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휴학을 하고 1983년 6월에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부(현 기은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84년 1월경 당시 김선길 은행장이 저의 사정을 전해 듣고 연수부에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덕분에 그해 8월 다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애행심과 직원사랑의 사표였던 당시 이명재 비서실장의 격려와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2월, 논문이 통과되어 긴 해외학술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전공분야는 중소기업 문제와 가장 밀접한 산업조직론이었고 논문 제목은 Small Business and Small-Business Financing in Korea이었습니다. 특히 논문 자료 수집에 많은 지점장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소 미련이 있다면 당시 이론과 관련시장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었던 파생상품 등 금융 분야를 깊이 공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Q5. 경제적인 애로사항도 많았을 텐데요

- 은행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석사과정에서는 등록금 전액과 월 70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은 면제되었고 과정 중간쯤 은행 지원금이 9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제 처가 베이비시터 등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학술연수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복리후생에 관심이 많았던 박종대 당시 부행장(현 전무이사)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Q6. 학술연수 후 은행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은행과 여러 선후배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안고 귀국하였습니다.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금융산업을 보는 넓은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은행에 보답하기 위해, 금융이나 산업의 흐름을 읽고 은행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IMF외환위기 등 은행이 큰 변혁을 겪을 때 사업부제 도입,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후배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분위기와 용기를 준 것도 매우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겠지요.

Q7. 해외학술연수 제1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업무적인 면이나 대외적인 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당행에서 해외학술연수가 계속 이어져왔을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발전하여 은행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은행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8. 끝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금융산업만큼 지식집약적인 분야도 없습니다. 바쁜 일과를 수행하다 보면 자기개발 노력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일 30분 또는 1시간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의 자기개발 노력을 계속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차별화된 금융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많아지면 우리 은행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출신 장교가 IBK 행원이 되기까지

최원석⁸⁹⁾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열린 채용 열린 인사제도’ 이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이 기업 은행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007년 8월에 입행한 이후, PE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석 대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근무부서명이 누구나 알만한 이름이 아니군요.

부서업무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PE부의 PE는 Private Equity의 약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고 적극적인 경영참여활동(이사회)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EF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 등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비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이를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과거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종사가 되고 싶어 공군사관학교 48기로 1996년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비행훈련에 입과 하였으나 조종사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행훈련을 그만두고 보급장교로서 5년간 대구비행장과 성남비행장에서 근무했지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기회를 접해보고 싶어, 제대 후 9개월 정도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2006년에 KAIST 경영대학원 테크노MBA에 진학하여 전략 및 재무분야를 집중 연구했습니다.

IBK에 입행하게 된 데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요?

IBK와의 첫 인연은 KAIST 경영대학원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맺어졌습니다. 당시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서 정말 멋진 강연을 해주신 허은영 지점장님과의 만남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강연자와 청중의 입장으로 만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몇 개월 후 방학을 맞아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

89) 2007년 입행, 현 여신운영본부 PE부 과장

를 환전하기 위해 허 지점장님(당시 한국투자증권지점 부지점장 시절)을 다시 만나 IBK와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IBK에 입행한 선배님들, 은행에서 학술연수로 경영대학원에 오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IBK는 제가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순위였지요. 그런데 마침 IBK 인사팀에서 리크루팅차 대학원을 방문했을 때 인터뷰한 것이 계기가 되어 IBK 가족이 되었습니다.

IBK와 이전 직장인 군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군 복무 시절에는 비행단 보급대대의 장교로 활동했으므로 내가 실무적으로 하는 일 보다는 지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류 검토 및 결재, 야외 훈련 등이 많았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수였지요.

반면 현재 근무부서에서는 내가 실무자로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소수의 인원이 훨씬 더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조직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군 못지않게 상사에 대한 의견이 매우 철저하다는 것과 상명하복의 문화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일정기간 후에는 순환보직제를 운영한다는 점, 전국에 점포가 흩어져 있어 인사명령에 따라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은행 간의 경쟁심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은행들의 해외진출 수요 및 글로벌 경쟁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IBK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IBK인들은 갖지 못한 저의 공군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IBK와 공군간의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머지않은 장래에 그 꿈이 이뤄지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경북도 촌놈에서 IBK행원이 되기까지

조현성⁹⁰⁾

단상에 올라 사령장을 받은 그날

2007년 8월 24일, 나는 7주간 연수를 마치고 사령장을 받았다. 길지는 않았지만 굴곡 많은 나의 삶에 또 하루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된 것이다. 새벽에 기흥연수원을 출발, 본점 로비에 도착하니 은행장님을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우리를 뜨겁게 반겨주셨다. 정식으로 기업은행 직원이 된다는 생각에 나를 비롯한 192명 IBK 기은창조 동기들의 뜨거운 열기는 본점 건물 전체를 8월의 날씨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달궜다. 넓은 강당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상에서 사령장을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라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사실 나는 동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에 비한다면 나는 단상에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입행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탈북 이후 중국과 몽골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나를 소개했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된다. 나와 함께 입행한 동기들보다 특별히 학점이나 어학점수가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내세울만한 자격증도 없었다. 오직 탈북하여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의 용기와 열정을 높이 평가해주셨을 것이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나의 성장기

내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 나는 1981년 그곳에서 태어났다. 청진은 북한에서 함흥 다음으로 큰 공업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도시며 재일교포 북송선의 도착항이기도 하다.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교류 덕분에 북한의 다른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유행도 빠른 곳이다. 북한에서의 나의 삶은 어쩌면 다른 동향인들에 비해 평온했던 것 같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밥은 굶지 않으며 살았고 학교에서도 나를 인정받는 학생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나이 16세이던 1997년 내 삶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사건이 터졌다.

군인이셨던 아버지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 남한사회에서 북한은 철저하게 감시받고 통제를 받는 사람 못살 곳이라고 여긴다. 물론 지금 북한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수만 명의 정치범이 존재하는 인권의 사각지대, 아비규환의 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외부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할

90) 2007년 8월 입행. 남동공단지점 기업고객팀, 현재 영업부 계장

곳은 아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그렇겠지만 그곳 또한 부익부·빈익빈이 엄연히 존재하며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나름대로 평평거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곳은 자유와 인권이 없는 곳이다. 평생 잘 나갈 것 같다가도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로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며 자랐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던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나에게도 닥쳐왔다.

어느 날 갑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만 말씀하시고 피신·잠적하시니 나와 우리 가족은 차디찬 세상에 무방비로 방치되었다. 재앙은 겹치기로 온다고 했던가? 그 해 북한을 휩쓴 전염성 피부병이 우리 가족을 덮쳤다. 어머니와 동생은 온몸에 일어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으로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유관기관의 조사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와 가족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내 평생 흘릴 눈물이 다 쏟아지다

그 나이에 당시의 상황을 견뎌내기 어려웠던 나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다. 그 생각이 다시는 고향땅을 밟지 못하는 멀고 험한 길이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 매달리면서, 경비초소가 있으면 산길을 따라 돌아 국경도시까지 가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이없게도 경비대에 붙잡혔다. 경비대와 보위부를 거쳐 청년동맹사무실에 오기까지 이미 내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얼굴은 통통 부어서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각목으로 맞은 다리로는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어머니께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전교생 앞에서 비판 받는 것이었다. ‘이대로 잡혀가면 안 되겠다, 반드시 기회를 잡아 탈출하자’ 결심했다.

당시 내가 잡혀있던 곳은 역전 옆에 있는 자그마한 단층건물이었다. 출입문과 창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 앞에는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 앉아 사람들이 돌아가며 나를 지키곤 했다. 밤이 깊어 함께 갇혀있던 어린 애들은 앓은 채로 졸고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자리를 비운 모습이 눈에 띄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앓은 의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창문으로 뚫다 던졌다. 낡은 창틀과 조각조각 이어붙인 유리창이 부서지며 엄청난 소리를 냈다. 나는 낡은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유리조각을 뚫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호각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정신없이 달렸다. 그러다가 인적이 드문 어느 집의 담 뒤로 숨어들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국경도시에서 어느 집 개구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내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중국으로 탈출을 결심했고 그 다음날 실행에 옮겼다.

6월의 두만강은 물이 깊지가 않았다. 건기라서 수량도 많지 않아 강을 넘나드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그만큼 경비도 삼엄해 강변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대신 두만강을 생활용수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경비가 느슨한 편이고 강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했다. 설마 ‘낮에 건널 미친 놈은 없겠지’ 하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잡혀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역이용해서 낮에 강을 건넜다. 두만강 옆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물에 뛰어들었다. 세찬 물살과 매끄러운 자갈, 다친 다리 때문에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뒤에서 탈북임을 알아채고 뛰어오는 경비대원들의 고함소리가 들렸지만 앞만 보고 달리고 걸었다.

‘여기서 붙잡히면 죽는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중국쪽 제방이 왜 그리도 먼지 원망스러웠다. 중국 쪽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이고 있었고 총을 든 경비대원들이 그때까지도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뒤로 하고 산을 향해 달렸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그렇게 밤을 새웠다.

중국으로 건너가면 바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야했다. 그러나 국경 쪽 마을들은 중국공안의 탄압 때문에 북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바로 내륙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불현듯 어머니와 동생이 생각났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다.

이제 다시 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부른 판단으로 건너온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시 건너가 볼 요량으로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향했다. 하지만 잠복해있던 경비대에 들리게 되었고 나는 다시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중국 쪽까지 따라온 북한 경비대원을 겨우 따돌리고 한숨을 돌리고 보니 다시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중국의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 평생 흘릴 눈물의 절반을 중국의 작은 시골길에 뿌리면서 걷고 또 걸었다.

“꼭 성공해서 가족에게 진 죄 꼭 갚겠습니다.” 수십, 수백 번 다짐하며 걷고 또 걸었다.

한국인선교사를 만나 안정을 찾다

중국에서의 삶을 정말 고달팠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설움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면서 피눈물을 흘린 날이 부지기수였다. 어머니와 동생 생각에 북한 쪽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무사하기를 밤마다 기도했다. 중국에서의 삶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도 아니었고, 중국인들로부터 받는 멸시도 아니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이렇게 사느니 어머니 모습이라도 보고 죽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다. 1998년 11월 30일 중국쪽 두만강 연안의 자그마한 국경도시 ○○에 도착했다.

전날까지의 맑은 날씨는 어디로 가고 마치 심술을 부리듯 쌀쌀한 바람이 나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며 산에 숨어있던 나는 도무지 그날의 추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부들부들 떨다가 근처의 민가로 향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몸을 좀 녹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던 아주머니께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나를 측은하게 보시던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삶을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에 나가보세요.”

간곡한 권유에 북한으로 가려던 마음을 접고 교회로 향했다. 처음 교회 정문 앞에 섰을 때 긴장감이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침략자의 앞잡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내가 신앙에 들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결국 그 곳에서 한국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선교사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혹시라도 붙잡힐까 싶어 창문마저 다 가린 건물에서 숨죽인 듯 있어야 했다. 단속이라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수 차례를 반복했다. 늘 불안에 떨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었던 것은 교회와 하나님이었다. 늘 기도했다.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숨어 지내던 나에게 교회로의 외출은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뻐는지, 그리고 놀라웠는지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평평 울고 말았다. 그동안의 서러움 때문에 울었고, 어머니와 동생 생각 때문에 더 울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생활하다가 드디어 몽골을 통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3년 동안 생사를 모르던 어머니와 동생과 연락이 닿아 드디어 한국으로 모셔왔다. 모두 각각 북한을 떠났지만 우리 가족은 남한에서 모두 모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당당한 모습으로 친구·친척들 앞에 서기 위해

지금 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지금도 가끔은 악몽이 떠오를 때가 있다. 친구들의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다 깬 때도 있다. 어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기업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점점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나는 다시 다짐한다. 그들 앞에 언젠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맡은 업무에 임하는 것이다.

입행 6년에 자격증 17개를 얻기까지

윤정훈⁹¹⁾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은행 직무에서 다양화·세분화·전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집합연수를 할 때 생기는 업무공백이나 고비용 등의 영향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문화가 구축되는 상황이다.

IBK에는 직원의 자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 8월에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자격증 취득 시 연수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말까지 IBK는 1,901개 자격증 취득에 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분야는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규직원이 그 대상이다.

6년 전, 입행할 때의 다짐

IBK 가족이 된지 어느덧 6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에 1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행원 대리급 중 최다 보유자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각종 모임과 잦은 회식 등의 유혹으로 자칫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도 있었는데, 시간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격증 덕분에 내 원고가 IBK 50년사에 실린다니 기쁘고 영광이다.

나는 2004년 여름 한 달 동안의 인턴 과정을 거쳤다. 그때 일했던 부서는 기업고객부(현 여신기획부)였는데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 ‘메디칼네트워크론’ 등 IBK 역사에 남을 중요한 현안들로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매일 11시 퇴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하는 선배들이 부지기수였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경영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큰 귀감이 되었다.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더 이상 공부하는 안 해도 될 것이란 생각이 한 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었다.

첫 도전에 행운의 합격

신입행원 연수 후 신림동지점에 발령 받았다. 업무는 미숙했지만, 고객께서 내가 권유한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그야말로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다. ‘난 은행원 체질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 고객에게 상품도 팔 수 있고, 책임자 임용자격 학

91) 2005년 2월 입행. 신림동지점, 기관고객부 대리, 현재 강서중앙지점 과장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자격증부터 준비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고 순진한 생각으로 결심한 것인데, 매일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에서의 과 동료들과 가볍게 하는 소주 한 잔 등 시험 전날까지 거의 교재를 펴 볼 수가 없었다. 너무나 형편없는 실력에 ‘시험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대립했다.

‘3개월마다 있는 시험인데 내일은 편히 늦잠자고, 다음에 준비 잘해서 보자.’

‘떨어지더라도 가서 치러나 보자.’

시험 당일, ‘오랜만에 동기생들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는 마음으로 단원별 요약 부분만 읽고 시험장으로 갔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는 것부터 풀고, 남은 문제들은 운에 맡기기로 했다. 느긋하게 답을 적고 30분 만에 나왔다.

그런 여유 덕분이었을까? 아슬아슬한 점수인 62점으로 첫 시험에 합격했다. 비록 턱걸이 점수로 통과했지만, 합격 후 인사정보에 자격증 내역이 기록되고 책임자 임용자격 학점을 취득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요령 피우다 안타까운 점수로 낙방

첫 시험의 행운 때문이었을까? 학생 때처럼 열심히 준비하기 보다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된다’는 요령꾼 생각이 마음 속 깊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수한 성적도 좋긴 했지만 커트라인 +1점을 받았을 때의 스릴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점점 시험 준비에는 소홀해졌고 행운만을 바라고 요령을 피우게 되었다. 하지만 행운도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2007년 3월 증권연수원 FP시험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점수인 69점(70점 이상합격)으로 불합격되었다. 가장 기분 좋은 점수가 커트라인 +1점이라면, 가장 약 오르는 점수는 -1점이라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 노력 부족은 탓하지 않고, 증권연수원을 탓하면서 ‘증권연수원에 전화를 걸어 부탁해볼까?’,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만지라도 걸어볼까?’ 등등 온갖 잡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노력 없이 너무 공짜로 자격증을 바랐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불합격하던 그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4월에 있는 금융연수원 FP시험을 바로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학생시절로 돌아가 제대로 해보자고 정성을 들였다. 그 결과 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에 더 큰 만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외환관리사 시험

여러 자격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8년에 취득한 외환관리사다.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외환관리사 시험은 1년에 2차례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7주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러야 최종 합격이다. 시험준비도 어렵지만, 7주간 주말 이틀을 꼬박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내 수강기간은 5월이었는데, 화창한 봄날 야외에도 못 나가고 답답한 강의실에 앉아 강사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한다는 사실

이 상당히 서글프기도 했다.

학생시절에는 편안하게만 느껴졌던 코엑스몰이었으나, 피곤에 지친 직장인 얼굴로 다니려니 마치 주변인이 된 듯한 느낌도 받아야 했다. 함께 수강한 기업개선센터 이윤석 과장과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5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린 이거 뭐하는 거지?”하며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난다. 놀 때는 그리도 짧은 시간이 수강시간은 왜 그리 지루한지!

매주 9시간 총 60여 시간의 길었던 7주간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치른 후에야 마침내 자격증을 받았다. 힘들고 긴 과정이었지만, 모든 것을 견뎌내고 얻어낸 자격증이었기에 더 애정이 가고, 기억에 남는다.

연초에 1년의 목표를 세우다

그간 나는 매년 초 탁상달력에 자격관련 시험일정을 표시해두었다.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前 증권연수원) 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험일과 시험접수기간 등을 확인하고 탁상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새해 다짐으로 그해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는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개발의 노력도 있지만, 일종의 매너리즘을 견제하고 항상 긴장감을 갖고 생활하려는 자신과 약속 때문이다.

사실 근무하다 보면 하루, 1주일,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그 사이에 아무런 목표 없이 살다 보면 주말에는 밀린 잠 보충하기 바쁘고, 술 마시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을 체크하고 시험에 응시하다 보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전 2주간은 긴장하게 된다. 평소 안 보던 책이지만 한 페이지라도 더 펼쳐볼 수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공부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떨어질까 두려워서 회피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일단 신청을 하고 설사 떨어질지라도, 준비를 하다보면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무하면서 주중에 공부시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공부는 주말에 해야 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연말에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받아서 상여금이 없는 12월에, 특별 보너스를 받고자 공부했던 적도 있다. 공부해서 자기개발도 하고, 연말 특별상금도 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주말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이유가 부끄럽긴 해도 주말을 자기발전엔 사용했으니 만족한다.

공부도 동료와 함께 하면 즐겁다

혼자서 공부하면 재미도 덜하고 포기하기도 쉽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기들이나 부서동료와 함께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려고 노력하였다. 내가 입행한 2005년부터 간접투자, 보험, 외환전문역,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등 새로 생긴 시험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동기들이나 부서동료들에게 이렇게 권유했다.

“제도 생긴 후 1회차 시험이 제일 쉬우니 같이 하자. 기왕할 거 늦게 하면 고생한다.”

기관영업부에서 2007년부터 4년간 내 멘토 역할을 해주신 이경호 과장은 오히려 이런 재미를 일찌감치 알고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해주기도 했다. 사실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면 ‘나만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지만, 사실은 시험 후에 만나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즐거웠다. 또한 은행관련 자격시험은 과목도 대부분 비슷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 한 과정을 잘해놓으면 다른 시험도 합격될 소지가 많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자신감도 생기고 흥미가 생기게 마련이다. 입행 후 5년 전후면 동기들도 대부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 혼자일 때 시험을 계기로 동기들과 모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다

자격증 취득은 업무기회를 좀 더 넓혀보기 위해서다. 외환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외환관련 자격증, 혹시 나중에 PB나 중소기업 CEO에게 자산관리 상담할 것을 대비해서 FP 등 PB관련 자격증을 준비했었다. 물론 업무에 대한 노력 없이 자격증만 열심히 취득한다고 기회가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열정을 바탕으로 자격까지 갖췄다면 분명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 믿는다.

사실 나는 술도 즐겨 마시고 여행도 무척 좋아한다. 공부만 하는 학구파 체질은 아니다. 하지만 인턴 시절 기업고객부 선배들의 모범적인 모습과 첫 시험의 행운으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17개의 자격증 가운데 고시에 버금갈만한 어려운 자격증은 없지만, 입행 후 긴장을 풀지 않고 매년 2~3개씩 꾸준히 취득해왔던 나에게 스스로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래서인지 꼭 해보고 싶었던 심사역 전문요원과 해외 학술연수 인력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지원해주며 여러모로 격려해주었던 내 생활의 터전 IBK,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자기개발에도 열성으로 다하는 직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보유자격증 일람 (2010년 10월 31일 현재)

자격증 명칭	발급일	만료일	발급기관명
생명보험대리점자격	20050514		보험연수원
손해보험대리점자격	20051126		보험연수원
외환전문역1종	20060421		한국금융연수원
변액보험판매관리사	20060502		생명보험협회
외환전문역2종	20070401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자산관리사(FP)	20070415		한국금융연수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20070601	20121231	시험합격(2007.6.1)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20070608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선물거래상담사	20070627		선물협회&증권업협회
종합자산관리사	20080121		손해보험협회
외환관리사	20080724		한국무역협회
기업자금관리사(CTM)	20081224		(사)한국CFO협회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20090424	20121231	시험합격(2009.4.24)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20090424	20121231	시험합격(2009.4.24)
금융자산관리사(AFPK)	20090621	20120731	한국에프피에스비
영업점플라이언스오피서	20090711		한국금융연수원
증권투자상담사	20100722		한국금융투자협회

[제6부. 인사·홍보·문화] Story_7

열정 · 창의 · 도전을 바탕으로 IBK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기업은행 2005년 신입행원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의 막내 2005년 신입행원 143명이 인사드립니다.

최종 합격통지에 가슴 설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들은 연수를 통해 기은행의 막내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기업은행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은 행장님 이하 여러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내기들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신입행원 143명은 7주간의 연수 중, 이제 겨우 2주차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회 초년병인 저희들은 날마다 알을 깨고 나와 다시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로만 듣던 '기은행의 가족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면서 몽클했던 적도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낯선 동기들을 언제 다 알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고 연수 과정 내내 강조되었던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그것도 기업은행 가족으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행의 역사적 정통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시던 전무님, 연수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색해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장미꽃을 주시며 밝게 웃으시던 이사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달려와 격려해주시던 여러 선배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설레던 연수 1주차를 무사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주에 다녀온 제주도 'YOUNG IBK 팀워크강화훈련'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기차와 배를 타고 12시간에 걸쳐 이동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비록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벅차올랐습니다. 용산역에 직접 나오셔서 '잘 다녀오라'며 신입행원 한 명 한 명의 손을 꼭 잡아주시던 본점 가족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역·익산역·송정리역·목포역 등 각 정차역마다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플래카드를 걸고 각 지방의 특산물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선배님들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정

차시간 2분이 어찌면 그리 짧은지 야속했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선배님들께서 손에 꼭 쥐어주시던 곳감이며 호두과자, 오징어, 굴, 손수건을 바라보며 마음 가득 기은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던 제주항에서의 모습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추운 날씨에 맨손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손을 흔들며 저희를 반기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니, 뭉클하는 마음에 얼른 달려가 제 장갑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은행의 문화구나!’하는 사실을 저절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들을 마중 나왔던 선배님들의 그때 그 모습들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연수는 팀워크강화훈련이었던 만큼, 제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녹록치 않았습다. 게다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한라산 정복훈련은 눈보라 때문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고행의 등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등산복과 등산화로 중무장했지만 눈썰매와 머리는 어느새 눈에 덮여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정상에 서서 다 얼어버린 점심도 시락을 킁라면 국물에 말아 동기들과 함께 나눠먹었던 경험 등은 앞으로 은행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곳곳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힘들어하던 동기를 이끌어주고, 차가워진 손을 서로 비벼주며, 조원들이 힘들어 지칠까 목이 터져라 ‘화이팅’ 구호를 외치는 동기가 없었다면 체감온도 영하 24도의 한라산 등반은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한라산 정상에서 10년 후 개봉될 타임캡슐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꿈을 담을 때, 저희들은 기은가족으로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과 꿈을 마음 가득 담을 수 있게 애써주신 은행장님 이하 모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신입행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선배님들 !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의미 깊고 소중한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또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전쟁 원년이 될 2005년, 기업은행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YOUNG IBK Man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2005년 입행동기생들끼리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투사’가 되자고.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전쟁에서 기업은행이 한국 최고의 은행, 더 나아가 세계 제일의 은행이 될 때까지 ‘기은투사’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6부. 인사·홍보·문화] Story_8

투사? 승리? 천하? 신입사원 기수별 애칭입니다

IBK 50년사 편찬반

IMF외환위기 이후 조직존망의 위기를 헤쳐 나오다 보니 1998년도부터 4년간 기업은행은 신입행원을 제대로 뽑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정규신입행원 채용을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신입행원 연수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연수기간도 차츰 늘어났다. 특히 2005년 신입행원부터는 연수기간 중 스스로의 토의를 거쳐서 기별로 애칭을 붙여 부르고 있다.

투사하면 2005년 44기 신입행원인데 말 그대로 불굴의 투사(鬪士)라는 뜻 외에도 44기의 기수에 4자가 둘 겹쳤다는 뜻의 'two 4'를 그대로 발음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05년 이후로는 신입행원마다 각 기별로 애칭을 부르고 있는 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애칭	입행시기,기수, 입행인원	애칭에 깃든 뜻
기은투사	2005년 상반기 44기 143명	BankWar에서 IBK의 투사로 태어나 뜨거운 열정을 바쳐 금융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 입행 44기는 두 번(two) 4자가 들어간 기수라는 숨은 뜻
기은돌풍	2006년 상반기 45기 182명	금융대전에서 끝없는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로써 기업은행에 강한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뜻
기은불패	2006년 하반기 45.5기 115명	금융전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불굴의 투지를 가 진 선봉장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표현
기은신화	2007년 상반기 46기 152명	새벽(晨)을 빛내는(華) 태양의 뜨거운 가슴으로, 새로운(新)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 않는 불(火)같은 정열로, 금융권의 깨지지 않는 신화(神話)가 되겠다는 뜻
기은창조	2007년 하반기 46.5기 190명	푸른(蒼) 창공을 향해 웅비하는 독수리(鳥)의 패기로, 밝은(彰) 아침(朝)을 여는 기백과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을 바쳐, IBK를 선두로 하는 세계금융의 새 역사를 창조(創造)한다는 뜻

애칭	입행시기,기수, 입행인원	애칭에 깃든 뜻
기은투혼	2008년 상반기 47기 214명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 여명처럼 빛나는 IBK의 미래를 위해, 투철한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고, 고객이 감동하여 혼절하는 그 날까지 불굴의 투혼(鬪魂)을 발휘하겠다는 뜻
기은비상	2008년 하반기 47.5기 222명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한마리 새처럼 기업은행의 CI가 상징하는 바로 그 성공날개가 되어 고객을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며 꿈을 향해! 최고를 향해 飛上한다는 뜻,기업은행을 飛上시킴! 非常한 신입행원들!
기은열정	2009년 상반기 48기 189명	IBK를 향한 뜨거운(熱) 마음(情)과 타오르는(熱) 승리의 눈동자(睛)로 세 차계(烈) 금융의 정상(頂)에 오르는 기은열정이 될 것을 다짐함
IBK승리	2010년 상반기 49기 198명	고객을 받들고(承) 세상을 이롭게 하는(利) 섬김의 마음으로, 정상에 올라(昇) 변혁을 주도하는(理) 선구자의 정신으로, 글로벌 금융대전에서 'IBK승리(勝利)'의 깃발을 휘날리겠다'는 의지
IBK천하	2010년 하반기 49.5기 208명	天下에 당할 자 없는『최강의 팀웍』과 샘(泉)솟는 물(河)처럼『창조적 열정』으로 투명하게 밝히고(闡) 기꺼이 깊어지는(荷)『신뢰와 책임』으로『고객(天)의 행복(嚇)』으로 가득한 'IBK천하'를 이룩하겠다는 각오

IBK 상설운동부의 긴 역사, 그리고 오늘

IBK50년사 편찬반

국민일체감이 형성되다

기업은행이 첫 시작을 알린 1960년대. 그때는 8·15광복의 감격과 6·25전쟁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산업발전이 움트던 시기였다.

국가경제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바로 그 시절, 국민경제의 근간인 주요 민간기업이 막 걸음마를 떤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국가홍보와 국위선양의 빠른 길은 각종 스포츠에서 우승하는 것이었다. 국내적으로는 그것만큼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지름길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스포츠팀을 운영했다. 지금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스포츠대회에서 우승하면 국가홍보와 국위선양은 물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까지 올라간다.

그런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 국민이 경기장이나 TV중계화면 앞에 모여앉아 목이 터져라 응원한다. 바로 국민 일체감이 형성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농구, 야구, 축구, 사격부 등 상설운동부를 창단 운영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상설운동부는 전 직원들에게 일체감과 애행심을 고취시켰고, 일반국민들에게 기업은행을 널리 알리는 데 첩경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기업은행은 부득이하게 상설운동부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설운동부가 국민과 기업은행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년 다시 사격부가 재창단되었다. 이후 여자배구팀을 창단하는 등 기업은행은 국민일체감 형성, 기업은행 직원들에 대한 가증심 고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과거의 상설운동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뒤이은 글을 통해 확인하고, 여기에서는 여자배구단 창단, 여자 축구 후원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IBK 여자 프로배구단 창단

2010년 10월 20일, 기업은행 이사회는 여자배구팀 창단을 승인했다. 이로써 기업은행은 GS칼텍스·한국인삼공사(KGC)·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에 이어 여자프로배구 제6구단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12월에 개막되는 2010~2011 시즌 정규리그에 초청팀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초대 사령탑에는 이정철 전 여자배구대표팀 감독이 선임되었다.

창단 조건으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3개 여고팀의 졸업 예정 선수에 대한
신인 우선지명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여자배구 명문학교인 중앙여고·남
성여고·선명여고를 선택했다.

이들 학교에는 성인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희진·박정아 선수가 소속되어 있다.

여자축구 WK리그 후원 협약

기업은행은 한국여자축구연맹(오규상 회장)에 매년 5억 원씩 2년간 후원하기로 결정
했다. WK-리그와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전국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에 타이틀스폰
서로 참여하는 것이다.

2011년 1월 1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한국 농구계의 주역이던 기은 농구팀

IBK50년사 편찬반

농구팀 창단과 초기 상황

기업은행 농구팀은 1962년 4월 7일, 신봉호 감독 겸 코치·이풍우 주무 외에 유경덕·정호천·김무현·장희방·김승규·신동식·홍은표 등 7명의 선수로 창단되었다. 박동규 초대 행장은 열렬한 농구팬이었다. 1963년 농협에서 김영기·이경우·이규창 선수를 영입한데 이어, 이듬해에 농협 농구팀이 해체되자 이재선·최영식 선수를 영입했다. 이후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특히 김영기·이경우·이규창·김승규 등 4명은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했다.

초창기 남자 실업농구팀은 한국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한국운수(지금의 대한통운)과 3군이었다. 농협이 팀을 해체한 후에는 전매청 농구팀이 발족했다. 기업은행은 창단 2년만인 1964년 19회 '전국남녀 종합농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1960년대에만 3차례에 걸쳐 우승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 무렵의 연습게임은 타 체육관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때 서울 시내에서 농구경기가 가능했던 곳은 장충체육관·경복고·서울여상·연세대·휘문고(세멘트)·고대체육관 정도였다. 기업은행은 주로 서울여상·경복고·연세대·YMCA·유스호스텔 체육관 등을 이용했다.

이때는 전용버스로, 차비 지원도 없었다. 어느 날 연습하려고 청운동에 있는 경복고 체육관에 갔으나 이를 못쓰게 하여 인왕산을 걸어서 넘어 당시 무악재 서울여상 체육관으로 이동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일은 1982년 말에 마포구 용강동 기업은행 수련관에 전용체육관이 생기면서 끝났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대학선수 스카우트전은 당시에도 치열했다. 특히 창단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이와 연관된 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하의건 전 지점장은 연세대 농구선수로 재학 중이던 1964년 11월 25일에 입행했다. 한국은행에서는 하의건 선수를 한은 농구팀으로 유치하기 위해 매월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연대 출신 선배였던 기업은행 농구팀의 이풍우 주무가 한정식집에 가서 좋은 대접을 해주었다.

이후 이 주무는 한 주에 2~3번 정도 찾아와 그리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의건

선수의 아버지가 애주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차례 부산까지 가서 술을 거하게 대접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은 입행을 약속하고 말았다. 그 바람에 하지점장은 기업은행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되었고, 한국은행에서 받았던 후원금은 기업은행이 한번상했다고 한다.

한국농구계를 제패하다

1970년대 기업은행 농구팀은 가히 한국 실업농구를 대표했다. 1970년 · 1973년 · 1976년 · 1978년 코리안리그를 제패했으며, 1974년 · 1979년에는 ‘대통령배 전국남녀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시기 동안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무려 12번이나 우승을 차지할 정도의 실력을 보유했다. 해외에서도 기업은행의 명성을 드높였다. 1975년 중동 3개국, 1977년 싱가포르, 1978년 인도네시아 해외 원정경기를 통해 우리나라 농구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당시 기은 BEST5가 곧 국가대표 BEST5였다 할 수 있었는데, 신동파 · 곽현채 · 차성환 · 김병원 · 강호석 · 김길호 · 김평만 · 김정태 · 김동광 · 박상웅 선수 등이 그 주역이었다. 이들은 10여 년 이상 국가대표팀의 주전 선수로도 활약했다.

한국농구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기업은행 덕분이었다. 1969년 마닐라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우승 · 1970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데 기업은행 김영기 감독과 선수들이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이때 중형무진 코트를 누비며 명성을 드높인 신동파 선수는 기업은행의 명성을 크게 높였다.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신동파 선수 이름을 알 정도였다고 한다.

농구팀 총무였던 인사부 강세중 과장(이사 부행장보 역임)은 하도 우승을 많이 하는 바람에(22연승) 회식비가 동이 났다며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회식경비가 모자라니 이제 우승 좀 그만 하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가히 기업은행 농구팀의 황금기요, 최전성기라 할 수 있다.

후임 총무는 정상철 과장(북부지역본부장 역임)이 맡았는데 열정을 다한 끝에 나중에 농구부장도 맡았다.

1980년대 중반의 어느 날, 김정태 감독이 정상철 농구부장을 마포체육관 옆 용강식당으로 오라고 했다. 그 식당은 농구팀이 대놓고 식사하는 백반집이었다. 정 부장이 가보니 메뉴랄 것이 부실했다. 그야말로 소박한 밥상이었다. 나물 먹고 물마시고 도 닭는 처지라면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당시 다른 대기업 팀의 식비는 1만 원 정도였다. 기업은행은 1,500원대. 정 부장은 이를 몹시 안타까워하며 예산 추가배정에 진력하였다. 일거에 맞출 수는 없지만 정 부장의 노력 덕분에 그나마 개선되었다.

한국농구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방렐 선수와 곽현채 선수는 쿠

웨이트 감독으로, 강호석 선수는 1970년대 바레인 감독으로, 김동광 선수는 1980년대 바레인 감독으로 초빙되어 중동국가들의 농구실력을 올려놓았다. 또한 방렐 선수는 남자농구 대표팀 감독으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우승을 이끌었고, 조승연 선수(삼성농구단장)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또 1984년 LA올림픽 여자팀 감독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신동파 · 곽현채 · 김동광 선수들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대기업의 농구팀 창단

국가경제 발전과 더불어 1978년 삼성과 현대농구팀이 창단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각 대기업들이 기업홍보 차원에서 농구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파격적인 스카우트 비용과 최고의 대우 때문에 신인이나 기성이나 할 것 없이 선수들을 끌어갔다. 금융기관의 농구팀은 신인선수 선발에서 현격히 밀려났다. 그 바람에 한동안은 선수 스카우트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당장 대기업의 대우가 좋아도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노후 문제가 있다고 소문나서 다시 스카우트 상황에 숨통이 트였다. 이로써 안종관 · 백기현 · 임기열 · 임영지 · 이민현 · 김남기 · 최철권 · 정재섭 같은 우수 선수들이 입행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종합농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기업은행 농구팀은 삼성을 70대 69로 꺾고 패권을 안았다. 종료시간 7초를 남긴 긴박한 순간에 박상웅이 따낸 황금 같은 자유투 성공으로 반골 차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박동희 행장이 예고 없이 관중석에 섞여 경기를 지켜보았다. 이처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자 박 행장은 코트로 달려나와 선수들을 격려했고, 회식하라고 말하면서 지갑에서 꺼낸 돈을 모두 곽현채 감독에게 전했다.

선수들이 박수와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동희 행장을 번쩍 들어 행가래를 쳤다. 만세삼창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우승 감격과 박 행장의 깜짝 출연이 더해져 농구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이날의 우승은 4개월 전인 1979년 8월 대통령배농구대회 우승과 이어져 감격이 더욱 컸다. 박 행장은 이 우승의 최대공로자인 김동광 선수를 즉시 승진토록 조치해서 1월 22일 대리로 발령받았다.

임영지 서초남지점장은 1981년 3월에 입행했다. 당시 농구단장은 황용범 이사였다. 마포에 전용체육관이 생긴 후에는 합숙하면서 훈련에 임했다. 황 이사는 새벽에 합숙소를 찾아와 선수들을 독려했는데, 덕분에 사기가 드높았다. 또 포상 및 인사고과 배려, 책임자시험 가점제 등 제도를 확립하자 선수들의 사명감은 갈수록 커졌다.

곽현채 감독과 강호석 코치는 점보시리즈 경기를 위해 합숙중인 선수 방이 출다면서 자신들이 깔던 전기담요를 밤중에 갖다 주어 선수들의 콧등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최철권 선수(송의여고 감독, 2010년 여자농구 U18 국가대표 감독)는 한 게임 82득점이라는 국내 최다득점 기록을 올렸다.

1987년 10월에 춘천에서 열린 코리안리그 결승전은 전승을 거두고 있던 기업은행(강호석 감독·김동광 코치)과 현대가 맞붙었다. 현대는 정주영 회장의 각별한 농구사랑과 관심을 받아 우승하게 되면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었다. 경기 전에 서로 몸을 푸는데 현대 선수들이 기업은행의 임영지 주장(현 서초남지점장)에게 우승을 양보하면 “두둑한 보너스를 딱 잘라 나눠주겠다”는 농담까지 했다.

결과는 기업은행 승리로 끝났지만, 당시 우승 보너스가 기업은행은 1인당 5만 원 정도였고, 현대는 수백만 원이었으니 그런 농담이 나올 법도 했다.

1960~1970년대를 기업은행 농구의 황금시대요, 전성기라 한다면 1980~1990년대는 강력한 재정 지원이 뒤따른 대기업과 오직 투지로 맞선 시대라 할 것이다.

그때 선수들은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만 승진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과 경기가 중복되는 경우였다. 1989년 5월도 그랬다. 그럴 때는 농구협회에 협조문서를 보내서 경기일정을 변경하고 시험을 치렀다. 시험 후 곧바로 해외 원정경기를 떠나 결과를 관에서 들은 경우도 많았다.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런 경우에는 합격자들이 불합격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한 방에서는 합격 축하주를, 다른 한 방에서는 불합격 위로주를 마시며 낙방의 설움을 달랬다. 술이 얼큰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쳤다. ‘시험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는 노래를 합창하며 낙방생들을 달랬다.

다음날 경기 컨디션이 좋을 리 없었다. 그 바람에 경기 출전은 그간 벤치에서 대기하던 후배들의 몫이 되었다. 모처럼 출전 기회를 잡은 후배들의 맹활약으로 경기는 대승!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후배들은 농담으로 “제발 시험이 자주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한바탕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1995년 3월 26일 제주 탐라체육관에서 벌어진 코리안리그에서 기업은행은 전승으로 결승전에 올랐다. 상대인 기아는 1패를 안고 있었다. 기업은행은 17점차로 지더라도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이우영 행장을 비롯한 정상철 농구부장, 강세중 전 부장, 김정태 노조위원장 등 다수가 응원차 내려갔다.

그러나 기량 때문이었는지, 운명의 예고였는지 95대 68, 27점 차로 패하고 말았다. 그때 기업은행의 진용은 박상웅 감독, 김남기 코치, 이민형·이호재·김상식·박상욱·신동재·김도명·장창곤·최명도·장일 선수 등이었다. 기아는 허재·강동희·김영만 등 최강의 멤버들로 1패를 안고 온 터여서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취했던 것이다.

1995년 10월, 기업은행 농구팀은 PBL(필리핀 농구연맹) 초청으로 마닐라에 전지훈련을 갔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농구팀이라 했더니 신동파 선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 소개시간에 “신동파 선수도 기업은행 출신이며 지금은 은퇴했다. 여기 그 동생인 신동재 선수가 왔다”고 했더니 우

래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동과 선수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농구팀의 해산

1996년 3월, KBL⁹²⁾출범과 함께 국내 농구계도 급격한 변화에 휩싸였다. 그간의 실업 농구에서 프로팀으로 변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은행 농구팀은 해체되었고, 산업은행 농구팀은 프로로 가기 어렵다며 팀을 '원주나래'로 넘겼다.

기업은행 농구팀은 프로 전환을 결정했다. 프랜차이즈 가입비를 1996년 말까지 납입하기로 하고, 연고지를 수원으로 정했다. 이재선 단장·이효상 주무·정재섭 감독을 내정하고 프런트 구성을 마치는 등 차근차근 준비가 이어졌다.

당시 박상웅 감독은 타 구단 감독·코치와 함께 해외 용병 선발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UCLA 체육관에서 이틀간 테스트를 통해 60여 명 선수중 적격자를 선발하려던 차에 LA사무소 박종규 과장으로부터 “우리 농구팀이 프로전환을 포기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결국 국책은행이 프로농구팀을 운영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과 프로팀 출범 후에도 이어지는 후속문제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결국 1996년 11월 22일 농구팀 해산을 결정하고 프로농구 가입권을 나산플라망스에 양도했다. 전체 선수도 함께 나산으로 가야 했다.

창단 이후 우리나라 농구계를 대표했던 기업은행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각 금융기관의 상설운동부도 해체되는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경제가 발전하기 전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했던 국민체육진흥의 시대적 소임을 마감한 것이다.

기업은행 농구팀은 초창기부터 “농구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경기에서는 완전한 선수, 업무에서는 완전한 은행원을 목표로 뛰는 전통이 있었다. 농구 선수들은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도 영업점 현장에서 코트의 열성과 노력으로 업무에 임했다. 덕분에 완전한 은행원으로 변신하였고, 능력 있는 지점장도 다수 배출했다. 기업은행 농구선수였고, 감독이기도 했던 김영기 KBL 전총재와 김경태 전부행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92) KBL(Korean Basketball League 한국프로농구연맹)은 SBS 윤세웅 사장이 초대회장을 맡았으나 발족주역은 기업은행 농구선수요 감독,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 보증기금 전무, 신보투자 사장, 대한체육회부회장, KOC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기 씨로 제3대 KBL총재를 역임. KBL창설로 농구관련종사자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자랑스러운 기은 농구팀, 그 추억의 시간

박상웅⁹³⁾

가장 화려했던 기은농구팀의 전성기

나는 1976년 2월 24일, 국내 최강이었던 기업은행 농구팀에 입단하여 기은가족이 되었다. 당시 선수로는 곽현채, 강호석, 김동원, 김평만, 김길호, 김동광, 김영태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다. 코트에서는 각종 경기대회 우승을 향해 비지땀을 흘리곤 했다. 그때 행내에서 농구선수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타 운동부보다 인정을 받았다. 각 부서에서도 활기를 불어 넣는 분위기 메이커로 인기가 높았다.

1979년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대통령배 시합에서 무릎에 이상이 생겨 이듬해까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던 중 1980년 1월, 3개 운동부 소속직원 가운데 팀의 에이스 및 대표선수에게 무시험 승진이 단행되었다. 당시 농구단장이었던 모 이사님의 지시라는 곽현채 코치의 말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특히 내가 승진 대상이라는 이야기에 마치 1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상큼한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구 본점 건물 뒤편 삼겹살집에서 전체회식을 가졌다. 곽현채 코치의 부츠에 맥주를 부어 차례로 한 잔씩 돌려 마시며 나를 ‘박 대리’라고 부르며 축하해주었다. 그런데 농구를 아끼는 직원들의 축하인사와는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발령 소식이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결국 곽현채 코치에게 어찌된 사정인지 알아보달라고 부탁했다. 코치가 전화로 알린 소식은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다. 승진하면 비록 부상으로 아픈 무릎이지만 더 열심히 운동해서 보답하려 했던 내 결심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무시험 승진이 안 된다면 정식 시험을 쳐서라도 당연히 승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시험준비에 들어갔다. 그해 대리 승진시험은 무더위가 한참인 9월에 있었다.

고난의 행군인 책임자 시험

각 부서에서 이미 팀을 짜서 관철동 하숙집에 들어가 있었다. 2명씩 8명이 들어가 있는 숙소에 뒤늦게 합류를 부탁하니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운동선수라 실무경험이 없었던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리도 만무했다. 그래도 하겠다고 버티는 나의 의지에 감탄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1980년 첫 해 규정집 실무교본을 통으로 외워가며 응시했던 나로서는 큰 기대는 없

93) 1976년 농구선수로 입행. 영도·개금동·양산·대연동지점장 역임. 2007년 5월 퇴직

었다. 그러나 합격발표에서 내 수험번호가 건너 뛰어가는 것을 보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 계리부 소속이었던 나는 어깨가 축 처져서 부서에 들어갔다. 위로 하던 동료도 혹시 모르니 과목 합격이라도 알아보라고 해서 인사부에 문의했다.

환·계산 1과목만 불합격이라는 말을 듣고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뻐했다.

영업점 업무에 임해 열심히 적응

이듬해 환·계산 1과목을 응시하기 위해 또다시 동국대학교 밑의 하숙집으로 짐을 옮겨 공부를 시작했다. 총 10명이 5개방을 사용했는데 나는 혼자 옥탑방에서 생활했다. 이번에 낙방하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피를 냈다.

같이 시험에 응시하는 멤버 가운데 어느 누구든 떨어뜨려야 내 합격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매일 저녁만 되면 카드놀이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공부했다. 실무교본 한 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그렇게 시험에 임하니 당당히 합격이었다.

발표 후, 20일도 채 되지 않아 계리부 조사역으로 발령받았다. 그래도 농구부에서는 계속 활동하라는 뜻에서 은퇴시키지 않고 팀의 매니저 역할을 맡겼다. 훈련장마다 동행했으며, 외국원정도 함께 다녀오는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루라도 빨리 지점에 나가 일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 그리고 1982년 2월, 부산 사상지점에 대리로 부임하였다.

대체·일부대체가 무언지도 모르고 업무에 들어갔던 나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직원들과의 유대에도 힘썼다. 부산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여 일하던 1994년 4월, 농구부 총무가 나를 농구부감독으로 발령내겠다고 연락해왔다. 막 은행 업무에 익숙해 가던 나는 감독직을 거절하였지만 사령장만 안 받았지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가족은 부산에 남겨두고 혼자 마포합숙소로 이사하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와 농구부의 운명

당시는 이미 대기업에서 농구부를 운영하던 때였다. 그룹 총수의 관심 아래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던 때라, 우수선수들은 대개 대기업으로 스카웃되었다. 그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의 스카웃 대상이었다.

우리 선수들이 대개 하위권이라는 건 뻔한 일이었다. 예산도 타 구단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타 구단 선수들이 쇠고기를 먹을 때 우리 선수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다. 다신 코트 위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임하는 정신들만은 남달랐다.

적은 예산에 스폰서도 없었던 우리 팀은 스포츠용품기업 Rebok 영업팀장에게 스폰서를 의뢰했다. 다행히 스포츠용품과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운이 없었는지, 전성기가 지나서인지 기업은행 농구팀은 우승 문턱에서 3번이나 좌절하는 뼈아픈 경험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농구계의 흐름은 프로팀으로 전향하는 추세였다. 기업은행도 프로전향을 준비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시장조사를 거쳐 프로 참가를 결정했다. 나는 타 구단 감독·코치들과 함께 외국의 용병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UCLA 체육관에서 이틀간 테스트를 마친 60여 명의 선수를 바라보며 긴장감에 사여 있을 때 LA사무소 박종규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 농구팀이 프로 전향을 포기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무수한 난관을 함께 이겨왔던 우리 선수들은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타 구단으로 드래프트시킨다 해도 겨우 3~4명일 뿐이었다. 나머지 선수들은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운명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모 그룹이 우리 농구팀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선수들이 다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그룹도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태였다. 다시 다른 기업(진로)으로 인수되고 말았다. 그곳도 마찬가지였다. 잣밥에 눈이 멀어 선수들에게 봉급도 제때 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던 차에 지금의 부산연고인 KTF(현 KT농구단)가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비록 지금은 남아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KT의 전신은 기업은행이라는 생각 때문에 KT 경기가 있는 날이면 TV채널을 고정시키고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해산되었지만 기은농구팀이 있었고, 그 농구팀을 응원하며 울고 웃던 직원들의 추억은 남아 있다. 나 또한 그 추억 속에서 기업은행과 함께 하고 있다 .

실업야구계의 모체, 기은 야구팀

배동철⁹⁴⁾

기업은행 야구팀, 그 오랜 역사

최근 프로야구의 인기가 치솟으며 국민 스포츠로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2010년 시즌에는 600만 관중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우리 야구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전통의 미국·숙적 일본·세계 최강 쿠바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WBC 세계대회 준우승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영향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구 실력이 급상승하게 된 밑바탕에 1962년 3월 10일에 창단한 기업은행 야구선수들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야구팀 창단 당시 선수로 입행해서 한국야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한 SK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 은퇴 후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감독으로, 또한 명문 프로야구 구단 해태타이거즈의 주축 선수들을 길러낸 최관수 투수 등이 기업은행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1961년 8월, 우리나라는 4·19와 5·16의 여파로 어수선했다.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발전이었다. 이에 정부는 그해 8월, 농업은행을 농협과 기업은행으로 분리·개편했다. 광업·공업·기타 제조업·운송업·건설업 및 상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업은행을 설립한 것이다.

때마침 박동규 은행장이 실업야구연맹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때 야구가 인기 상승세이기도 했지만, 박동규 행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은행 최초의 야구팀이 창단된 것이다.

대체로 농업은행 야구팀을 최초의 은행팀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행팀은 금융조합에서 승계되었으니, 첫 창단 은행팀은 당연히 기업은행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창단 후 기업은행 야구팀은 한국 실업야구계의 모체를 이루면서 김성근 감독과 같은 수많은 야구인재들을 배출했다. 5·16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기업은행 야구팀의 성공에 자극받은 은행들도 야구팀을 창단했다. 특히 1963년에는 실업야구 역사상 가장 큰 호황기를 맞게 되었으니, 무려 10여개 이상의 실업팀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1963년부터는 단기대회가 아닌 상당 기간에 걸치는 리그제도가 도입되어 연중 폐넉트레이스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실업야구의 발전, 그리고 최근의 프로야구 흥행 성공은 기업은행 야구팀의 창단이 모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94) 1971~2005년 근무, 소하동, 대림동, 통진지점장 역임

한편 프로야구의 성공은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의 발전을 이룬 초석이었다. 축구·농구·배구가 프로야구의 뒤를 이어 속속 프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62년 3월, 기업은행의 야구팀 창단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위상을 몇 단계 높인 기초였다고 할 것이다.

기은 야구, 창단팀의 구성

기업은행은 1961년 현역에서 물러난 김양중⁹⁵⁾을 감독으로, 황희린을 주무로 선임하고 14명을 영입하여 선수단을 구성했다. 대표적인 선수들은 다음과 같았다.

투수 : 김성근·최관수

포수 : 허호준

야수 : 조복연, 고영환, 배수찬, 김희련, 박하성, 이병렬, 김점생

당시 33세였던 김양중 감독은 현역 시절, 미국 프로야구 팀과의 경기에서 국가대표팀의 좌완투수로 명성을 날렸다. 그 상황을 되새겨보자.

1958년 10월 21일,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구단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Saint Louis Cardinals)와 한국대표팀 서울운동장이 서울운동장에서 친선경기를 펼쳤다. 미국 프로야구팀이 방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야구의 본고장 미국, 그것도 메이저리그의 유명선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야구팬들은 흥분했다.

서울운동장 구장은 2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는데 대통령까지 본부석에 자리를 잡았다. 1회에 카디널스팀의 맹렬한 공격을 견디지 못한 우리나라는 김양중 투수로 교체했다. 구원투수인 김양중 선수는 7회까지 무실점을 기록하며 관중들을 경악시켰다. 특히 6회에는 세기의 강타자로 평가받던 스탠 뮤지얼(Stan Musial)을 삼진으로 잡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김양중은 8회와 9회에 1점씩을 허용, 결국 3대 0으로 졌다. 그러나 9이닝 동안 7피안타 2실점의 역투를 펼쳐 우리나라 야구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긴 것이다.

강장 밑에 약졸 없듯 전설의 좌완으로 1950년대를 풍미한 김양중 감독은 예리한 눈으로 우수선수들을 뽑기 시작했다. 투수는 그해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팀 에이스로 활약한 김성근⁹⁶⁾과 인천 동산고 기교파 투수 최관수, 정통파 투수인 곽상령을 영입했다.

포수는 국가대표급 선수인 허호준과 초고교급으로 알려진 휘문고 조복연을 포진시켰다. 내야수비는 타격의 달인 김희련과 명3루수로 이름을 날린 오춘삼, 그리고 김점생,

95) 기업은행 야구팀 창단의 주역. 현업에 복귀한 후에는 광주·담십리·이태원·청주·홍제동지점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 기업은행 창립 30주년 회상기 '축복의 방주'에 '그 시절 그라운드의 영육'이라는 그의 기고문이 실려 있다. 기업은행 초창기 야구팀의 사정과 애환을 볼 수 있는 사료다.

96) 1962년 입행. 1972년에는 기업은행 야구팀 감독으로 활약했다. 1976년 5월에 퇴직한 후 여러 기업의 야구감독을 맡으면서 한국야구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2006부터 SK와이브스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09년 7월에는 그의 일대기를 그린 <야신 김성근, 끝까지 일등으로>가 출판되었다.

박하성, 최홍길이 지키도록 했다. 외야수로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의 1번 타자였던 배수찬을 필두로 이병렬, 김정호, 고영환을 영입했다. 그리고 육군팀의 중견수이던 박종환을 충원하여 수비와 타선을 강화했다.

초창기 기업은행 야구팀 감독과 선수들은 자기들의 기업은행 내의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경기에 임했다. 이들은 '기업재정이 얼마나 넉넉한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강인한 정신으로 어떤 최선의 도전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명과 도전정신으로 뭉친 선수들은 야구는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선수들의 신선함은 기업은행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기에도 충분했다. 기업은행 야구팀 창단은 타행에도 영향을 미쳐 1962년 이후 다음 해에는 모든 은행이 야구팀을 창단했다.

앞서 약속했으나 기업은행 선수들은 매우 우수했다. 그중에서도 김성근과 최관수 선수는 우리나라 야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다. 두 사람은 선수 생활을 마친 후, 무명선수들로 이루어진 중하위권의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는 집념의 감독으로 각광 받았다. 야구에서만은 늘 앞서간다는 일본인들조차 "한국에도 이렇게 야구에 대해 해박한 분이 있느냐?"고 놀라곤 했다. 무명선수를 조련시켜 우수선수로 만드는 특기의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다.

김성근 감독은 2010년 프로야구 페넌트시리즈 및 한국시리즈에서 SK와이번스를 우승 시켰다. 감독으로 취임한 이후 4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출전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최관수 선수는 1961년 동산고 3학년으로 고교야구 최고의 투수였다. 1960년에는 고교 2학년의 신분으로 당시 최강이었던 경동고의 일본원정시 합류하기도 했다. 최관수는 직구의 스피드도 월등했지만 커브도 잘 구사해서 삼진을 잘 시켰다. 그는 이미 고교 3학년 때 국가대표팀의 우완 에이스로 활약했다. 선수에서 물러난 그는 군산상고 감독으로 취임하여 수많은 신화를 남겼다. 그는 감독이었지만 매사에 솔선수범했다. 선수들보다 늘 먼저 야구장에 나왔고, 훈련시간 동안은 아주 진지했다. 선수들 모두 감독을 믿고 의지했다.

최 감독은 야구와 관련된 유행어도 만들어냈다.

"자! 이제부터야!"

그 말 이후, '9회말 역전'의 신화를 만들곤 했다. '야구 불모지'였던 군산을 '고교야구의 성지'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 후 병으로 일찍 타계했지만 한국야구사에서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 감독은 열악한 조건에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은행 야구팀 창단시의 도전정신을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초창기 경기 성적

세상만사는 무슨 일이든 혼돈에서부터 시작된다. 1960년대 초반, 특히 4·19 직후에

는 체육행사도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대회가 없어지는 등 혼돈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1962년 3월에 창단한 기업은행 야구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미래에 세워질 현대적인 야구장에서 멋진 꿈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첫 해를 준비했다. 1년차에는 아무래도 미비점이 많다는 생각으로 우승보다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였다. 그해 5월7일 대통령배 춘계실업야구연맹전(야구협회·조선일보 공동주최)에 첫 출전한 신생팀 기업은행은 한 국미곡창고·인천시청·농협·교통부 등 5개 팀이 참가한 1차 리그에서 4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해서 다른 팀들을 경악시켰다. 이 대회에서 기업은행의 김희련은 31타수 14안타로 타격상을 받았다. 이 대회를 통해 기업은행의 에이스 김성근은 본격과 좌완투수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미8군리그가 열렸다. 국내 실업야구팀과 주한미군 선발팀이 1년 동안 주말마다 경기를 가졌다. 야외운동이 힘든 겨울 직전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기업은행은 창단 첫 해임에도 1962년 미8군 리그에서 우승했다.

1963년은 실업팀 창단이 제일 많았다. 기업은행의 대활약에 자극 받아 1962년 12월 27일,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야구팀이 창단되었다. 1963년 2월 10일에는 제일은행 야구팀이 창단하는 등 팀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써 1963년부터는 13개의 전체 실업야구팀이 참가하는 리그전이 열렸다. 이 대회에서 기업은행 야구팀은 김성근과 최관수가 좌우에서 막아내고, 김양중 감독이 5번 타자로 나와 맹활약을 하며 승리를 이어나갔다. 기업은행 야구팀은 6월 5일 그해의 마지막 경기를 했다. 우완투수 최관수가 제일은행을 산발 3안타로 막아낸 끝에 2대 0 완봉승을 거두었다. 창단 1년 만에 대망의 한국실업야구 정상에 올라선 것이다.

1964년 5월 11일에 실업리그가 개막되었다. 4차 리그까지 1년간 총 312게임이 벌어진 대회의 1차 리그에서 기업은행은 8승 1무 3패의 성적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마지막 리그의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 다시 한 번 우승을 거머쥐었다. 우수선수상은 최관수 선수가, 수위타자상은 3할3푼6리의 배수찬이 차지했다.

한편, 1964년에는 경기도 고양군에 숙원사업이었던 야구전용구장(고양수련관)이 마련되어 선수들의 기량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힘입어 배수찬·김희련·최관수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1965년에는 팀 수가 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은행은 그해 NBC전국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창단 후 초창기의 대표 성적은 아래와 같다.

1962년 미8군 야구리그 우승

1963년 전국실업단리그 우승

1964년 실업야구대회 우수선수상(최관수)·수위타자상(배수찬)

1965년 제11회 전국야구선수권대회 우승

1966년 제12회 전국야구선수권대회 준우승

1968년 제18회 백호기쟁탈 전국야구대회 준우승

1970년 제16회 전국야구선수권대회 우승

1974년 제20회 전국야구선수권대회 우승

1966년에 김양중 초대 감독이 물러나 현업에 복귀했다. 이후 명포수 출신의 허호준 선수가 제2대 감독을 맡았다. 그러나 창단 이래 국내 정상급 팀으로 한국야구사를 빛냈지만 1977년 11월, 포철야구팀이 창단되면서 많은 아쉬움 속에 해체되고 말았다.

역경에서의 도전, 그 전통 살려나가야

초창기 기업은행은 모든 운동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당연히 직원들은 열렬한 팬이 되었다. 지금도 야구장이나 농구장에 환갑을 훨씬 넘긴 옛 동료들을 지금도 만날 수 있다.

68세의 노장 김성근 감독을 보면 마치 생의 마지막 힘을 쏟아 부으며 외롭게 투쟁하는 듯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기업은행의 도전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성근 감독은 우리나라를 부강국가로 만들기 위해 맨발로 뛰어온 우리 세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즉 김성근 감독의 고뇌에 찬 얼굴에서 '내 인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로지 자녀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기업은행의 초창기 직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2년 기업은행 야구팀의 창단 이후, 우리나라 야구는 크게 발전했다. 초창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 할 수 없었던 세계대회 준우승과 올림픽 우승을 일궈냈다.

비록 숫자상으로는 적지만 초창기의 기업은행 선수들이 현장에 남아 후배선수들을 교육시키고 야구 발전에 매진해온 결과이다. 우리의 자랑스런 야구팀 출신들은 더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뚝한 세계 속에 대한민국 야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기업은행의 도전정신이기 때문이다.

한국축구 최고의 명문, 기은 축구팀

IBK50년사 편찬반

축구팀 창단

1969년에 10개의 은행들이 축구팀을 창설했다. 금융권의 축구팀 창설 이전까지 상설 축구팀을 운영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한중석·제일모직·금성방직·한국전력·석탄공사·철도청·서울시청·육군 정도였다.

기업은행 축구팀은 1969년 12월에 강찬우 감독과 차경복 코치를 선임하고 김정신·한득수·조태환·김진국 등 청소년 국가대표팀을 주축으로 창단했다. 강찬우 감독은 본래 육군 중령으로 육군팀 감독을 맡고 있었다. 예편과 동시에 기업은행 감독으로 스카우트되었다. 강찬우 감독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했다.

"Soccer is war. 영광은 오로지 승자의 몫이다."

기업은행 축구팀하면 대개의 경우 최길수 선수를 연상한다. 그 정도로 그는 기업은행 축구팀의 상징이자 아이콘이었다. 최 선수는 군복무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강찬우 감독 휘하에서 육군 대표선수로 활동하다가 제대하고 복학했다. 졸업과 동시에 강찬우 감독이 기업은행에서 함께 뛰자고 권유했고, 박수덕과 함께 입행했다. 당시에는 선수가 부족해서 차경복 코치도 함께 경기에 출전했다.

그 무렵, 대표적인 축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춘계실업축구연맹전, 추계실업축구연맹전, 실업선수권대회, 대통령배전국축구대회, 전국축구종합선수권대회, 대통령배금융단축구대회, 전국체전 등이다. 기업은행은 7개 대회를 골고루 우승한 유일한 축구팀이었다. 대통령배전국축구대회와 전국축구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 축구협회에서 보너스도 주었고, 국가대표로서 외국과의 경기 출전권도 주었다.

초창기 기업은행 선수 출신의 국가대표는 최길수 감독 외에도 차경복·박수덕·강기욱·조동현·권이운·유동춘·김진국·조관섭·김희천·오희천·유진희·유동우·서효원·정제권 등이었다. 특히 박수덕 선수는 한일전에서 반드시 골을 기록했던 일본 킬러로 각광받았다.

팀 창설 이래 1971년의 춘계전국실업축구대회와 1972년의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기업은행은 이후에도 괄목할 성적을 기록했다. 각 경기에 대한 우승 내역은 '중소기업은행 40년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축구팀 살림을 도맡은 한정희 총무

한편, 1977년부터 5년간 축구팀 총무로 살림을 도맡았던 한정희 전지점장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1977년 전산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 축구부장을 겸했던 김윤재 심사부장이 그를 찾았다.

“당신 축구 좋아하지?”

축구표라도 주는 줄 알고 반색한 그에게 심사부장이 말했다.

“이제부터 축구팀 총무해. 알았지? 인사부에서 곧 임명할거야.”

“나는 술도 못 먹고... 축구팀 총무감이 못됩니다. 다른 사람을 골라보시지요.”

“그러니까 골랐지! 총무까지 함께 술 먹으면 축구팀 엉망 된다구.”

그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보니 빚이 300여만 원이나 되었다. 한 총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그 바람에 불평도 늘었을 것이다.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자 부인 모르게 개인대출 500만 원을 받아 이것부터 정리했다.

1977년의 축구팀 예산은 700만 원! 살림이 이렇다보니 우수선수 스카우트는 애당초 불가능했다. 축구팀 살림의 실상을 알리고 증액을 호소하니 1978년 예산이 1,300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제서야 숨통이 트였다.

강찬우 감독은 경기에서 이기면 신이 나서 단장인 박장서 이사에게 승전보를 알렸다. 경기에서 지면 결과보고를 총무에게 미루다 보니 그때마다 들어가 패전을 보고했다. 물론 우승보다 패전이 많은 것이 경기다 보니 감독보다 한 총무가 더 자주 드나들었다. 축구는 실력이 좋아도 공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다. 특히 과격한 경기다 보니 선수들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 총무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경기에 이기나 지나 월급도, 상여금도 같은 데 누가 열심히 땀니까?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말이야 좋지! 받은 선수는 좋지만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게 인센티브인데 그때 터지는 불평불만을 당신이 책임질 거야?”

처음엔 말도 못 붙이게 하던 김 부장이었으나 6~7번 계속 찾아가, 선수들의 현실을 전했다.

“당신 책임 아래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이후부터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경기에서 이기면 감독과 코치, 출전선수에게 1만 원, 비기면 5,000원, 교체선수들은 5,000원의 상금을 주었다. 경기장으로 가는 도중 차 안에서 “오늘 인센티브로 줄 돈을 이렇게 가져왔으니 최선을 다하라”면서 돈다발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러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맹렬히 뛰기를 약속했다. 자연스레 경기성적이 올라갔다. 1978년의 1만 원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모든 분야가 다 비슷했지만 축구팀에는 합숙소가 없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짐 가방

을 들고 이리 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 타행 선수들이 "기은선수들은 날라리부대"라고 비아냥거릴 만도 했다. "숙소도 없으면서 경기장에서 뒹 때는 어찌 그리 악착같은지 참 도깨비부대야" 하는 말이 돌았다. 숙소가 없어 진로결정을 망설이는 선수들도 있었다. 한 총무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유동춘·신우성 두 선수를 자기 집에 기거시키기도 했다.

기업은행 선수들은 먹는 것도 부실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 총무는 집에서 켜 고기를 가져와 본점 옆 제일식당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선수·코치·감독이 총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축구선수는 축구가 바로 은행업무인데 우승해도 승진이 없다고 불평 불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는 한 총무가 "이번에 우승하면 틀림없이 승진시켜준다"고 말했더니 픽 하니 웃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을까. 1979년 실업축구연맹전에서 기업은행은 기어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기업은행은 강종태·권이운·박건순 등 세 선수를 승진시켰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우수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대리시험에 가점제도도 도입했다. 선수생활 5년이면 30%, 4년이면 25%, 3년이면 20%를 가점해주고 과목합격을 인정해주었다. 자연스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훗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최길수 감독과 축구팀

최길수 감독은 전주 완산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에 대한 남다른 기량을 발휘했다. 전주서중을 거친 그는 축구명문인 한양공고, 경희대로 진학하였고 군 복무 또한 육군 축구선수로 마쳤다. 1968년부터 1972년에는 국가대표선수로, 1980년부터 1997년까지는 기업은행 축구감독으로, 1984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제 축구심판으로 활약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제심판으로 선임되어 기업은행의 위상을 높였다.

1997년에 퇴직한 후에는 실업축구연맹 전무이사(2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이사, 고등학교 축구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쌍둥이 아들도 역시 축구선수로 뛰고 있다. 경기 후 뒤풀이로 노래방에 가면 언제나 그가 부르는 노래는 한 가지다. 태릉선수촌에서 부르던 '이기자 대한건아'를 끝에만 '기업은행 축구단'으로 고친 가사였다.

우리들은 대한건아 늠름하고 용감하다
기른 힘과 닦은 기술 최후까지 펼쳐보세
조국의 영광안고 온 세계에 내닫는다
이기자 이기자 이겨야 한다
빛내자 빛을 내자 "기업은행 축구단" (= 배달의 형제들)

최길수 감독에 대해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집념의 화신으로 승부욕이 강해 선수들을 그야말로 강훈련시켰다. 비 온다고 쉬는 법도 없었고 눈 온다고 봐주는 것도 없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수많은 우승을 거머쥔 수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다른 팀은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

"끈끈한 팀"

"한 번 붙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팀"

"예선전에서는 비기더라도 결승전에서는 악착같이 달려들어 꼭 이기는 팀"

다른 팀은 우리와의 대전을 은근히 기피했다. 모두 최 감독의 공로였다. 그는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심어주려고 고양수련관에서 연습하다 쉴 때면 '네 잎 클로버를 찾아라'고 권했다. 정말 발견하기라도 하면, 그날 경기에서 우리가 이긴다면서 화색이 돌았다.

"봐라! 전에도 이렇게 네 잎 클로버를 찾아냈더니 우리가 이기더라!"

그러므로 수년간 찾아낸 네 잎 크로버를 스크랩북에 순차로 편철한 실물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선수들은 한동안 네 잎 클로버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감독의 집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감독이 부부와 함께 매일 새벽기도에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님은 매일, 기업은행 축구팀의 우승과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주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인정사정 없이 강훈련으로 선수들을 고달프게 만든다고 원망한 선수들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최 감독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지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3년 여름에 축구팀은 강릉으로 전지훈련을 갔다. 전지훈련을 가면 언제나 운동장에서 강훈련을 해야 했다.

하루는 비가 왔다. 조금 쉬고 싶었던 한 선수가 운동장 철문 열쇠 구멍을 막아버렸다. 쉬기를 기대하면서. 그랬더니 최 감독은 스타디움 밖 광장을 더욱 죽자 사자 돌게 했다.

'으이구! 지독한 감독 같으니라구!'

그런가 하면 경기가 없는 동절기에는 규정집과 한문, 영어기초를 공부하도록 조치했다. 책임자 시험에 대비토록 배려한 것이다.

기업은행에서 17년간 근무했던 중앙대학교 조정호 감독은 조관섭·강기운(현 송림동지점 부지점장) 선수와 함께 입행했다. 그는 최길수 감독에게 재학 때부터 월 10만원씩 후원금을 받았다. 세월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정말 기업은행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난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 시절이 가장 재미있었고, 추억거리 또한 많았다고 하면서.

한편, 운동부 가운데 축구팀은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선수숫자가 많았기 때

문이다. 대리 직책으로 현역에서 뛴 선수들도 있었다. 조정호(현 중앙대 감독), 오희천(현 통진고교 감독), 오세웅·신제경 대리가 바로 그들이다.

국제축구대회 우승의 감격

최길수 감독은 1976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이후 코치를 거쳐 1980년 강찬우 감독에 이어 기업은행 축구팀 감독이 되었다. 이후 1997년 2월에 은퇴하기까지 축구팀을 이끌어온 산 증인이다.

그간 수많은 경기를 치렀지만 1987년 11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3회 DCM배 국제축구대회⁹⁷⁾ 우승이 가장 보람있는 기록이다. 이때 참가국은 인도·태국·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기업은행 팀이었다. 참가자는 조동현 코치·이형로·강태혁·김성남·조관섭·조정호·오희천·박철규·최종학·김승춘·유진희·김현철·이찬섭·정규호·이광우·김광명·홍현철 선수와 노수섭 부장 및 오형관 총무 등이었다.

공항에서 내린 이들이 뉴델리 시내로 향하는 도중에 보니 8차선과 10차선 도로상에 승용차와 버스, 트럭은 물론, 마차·자전거·삼륜차 등등 온갖 차량들이 어우러져 와글벅적 시끌했다. 그러니 차는 거북이처럼 느렸다. 길가에는 천막치고 사는 사람들과 그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치 피란민들 같았다.

그렇게 달려가던 중 축구팀 깃발을 내건 깃봉이 똑 떨어졌다. 최 감독은 이런 일에 민감했다. 불길하다고 받아들여서인지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깃봉을 도로 붙여야 축구팀 깃발을 제대로 게양할 수 있는데 묘책이 없었다.

이때 신제경 선수(현 동탄서지점 팀장)가 마침 축구화 밑창 고무가 떨어지면 바르려고 접착제를 사온 것이 있다고 말했다. 깃봉을 깃대에 조심조심 붙이고 굳기를 기다렸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귀국할 때까지 단단히 붙어있었다. 그 덕분일까? 이 경기에서 기업은행 축구팀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오형관 총무의 주선으로 선수단이 버스를 타고 타지마할을 단체관광한 것도 추억의 하나이다.

경기결과를 살펴보자. 1987년 11월 1일의 예선경기에서는 인도 모하메단 팀에 1대 0으로 이겼다. 이날 경기에서 후반 37분 김성남 선수(현 업무지원부 차장)가 골을 터뜨렸다. 이어 11월 3일 최종결승전에서 인도 최강팀 파그와라 팀과 경기가 벌어졌다. 불꽃 튀기는 결승전에서도 1대 0으로 이겼다. 전반 21분 김성남 선수가 김승춘 선수의 패스를 받아 단독으로 드리블 한 끝에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세 경기 모두 1대 0으로 승리하고 개선했다.

당시 유돈우 행장은 대단한 축구팬이었다. 덕분에 1987년 11월 6일, 김포공항에서부

97)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1986년 10월 30일 대통령배금융단축구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는 한국의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했다.

터 대대적으로 환영행사를 거행했다. 축구협회 임원도 행내로 초청해서 거창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 감독은 후일, 축구선수로 감독으로서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의 우승컵은 혼자서 못들 정도로 컸다.

‘기업은행 30년사’, ‘40년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 두 선수가 양쪽에서 마주 들고 있다. 이 우승컵은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국내대회에서 우승하여 국제대회에 출전한 것이 총 7회나 된다.

‘5형제 축구선수’ 중 셋은 기업은행

그 무렵, ‘5형제 축구선수’로 이름을 떨친 가족이 있었다. 유동춘, 동관·동우·동기·동욱 등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동춘, 동우, 동기 형제가 기업은행 소속이었다.

유동춘 선수는 현재 서울공고 감독이다. 유동관 선수는 포철 선수로 18년간 뛰다가 지금은 신갈고등학교 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유동우 선수는 우석대 감독이며, 유동기 선수는 현재 기업은행 여신관리부 차장이다. 막내 동욱은 5형제의 모교인 군산 구암초등학교에서 감독을 맡고 있다.

마지막 5분, 경기의 승패가 결정된다

1995년 9월 28일, 추계실업연맹전 결승전이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렸다. 상대는 철도청팀.

전반전에서 철도청팀에게 1점을 내준 기업은행은 후반 42분까지 점수를 내지 못했다. 승리는 철도청으로 굳어지는 듯 보였다.

경기 종료시간이 다가오자 아나운서가 철도청의 승리를 확신한듯 이렇게 말했다.

“기차가 부산역을 출발해서 대전역을 통과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박두정(현 검단지점 과장) 선수가 김남일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 차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다. 이어 벌어진 연장전에서 박국창 선수의 결승골로 기업은행은 대망의 우승컵을 안았다.

아마도 그 아나운서는 ‘축구에서 예단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다음날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축구 기업은행 2연승. 1995 가을철 실업연맹전-

기업은행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철도를 꺾고 95 가을철 실업축구연맹전에서 우승, 대회 2연승을 달성했다. 기업은행은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전반 35분 한국철도의 김찬석에게 선취골을 내준 뒤 막판까지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해 패색이 짙었으나 경기 종료 직전 박두정이 김남일의 센터링을 받아 극적인 동점을 이룬 뒤 연장에서 박국창의 결승골로 2:1로 이겼다. 기업은행은 골든골제로 열린 연장 3분 박두정의 헤딩 패스를 받은 박국창이 달려들며 정확히 머리로 받아넣어 골네트를 흔들며 93분간의 접전을 마무리했다. (동아일보 1995. 9. 29)

1997년 3관왕 기업은행과 축구팀 해체

1997년에 기업은행 축구팀이 해체되었다. 제7회 전국실업축구선수권대회가 같은 해 7월 10일 속초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때 기업은행은 한일생명과 결승전을 치렀는데 선수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연장전에서 우승하는 투지를 보여주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자.

-기업은행 정상 “골인” 축구실업선수권대회-

기업은행이 제7회 전국실업축구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10일 속초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한일생명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전반 9분 최동식이 패널티킥을 성공시켜 2대 1로 이겼다. 이로써 기업은행은 올 4월 춘계 연맹전 우승에 이어 2관왕이 되었으며 최동식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전반을 1일 1로 마친 기업은행은 후반 들어 이준호와 양종진이 주심판정에 항의하다가 잇따라 퇴장 당해 위기를 맞았으나 연장9분 박금열이 상대수비 반칙으로 얻어낸 패널티 킥을 최동식이 성공시켜 극적으로 승리하였다. (동아일보 1997. 7. 11)

현역에서 물러나 은행업무에 복귀한 선수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태환 전지점장이다. 그는 4년간의 선수생활을 접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때에는 그야말로 답답했다. 지점 발령 후 1년 동안 야간 주산학원에 다니고 2년간 야간 부기학원에 다니면서 업무를 배웠다.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동료들에게 질문했다. 대리 시험도 한꺼번에 전과목 합격의 욕심을 내지 않고, 과목합격 작전을 세워서 돌파했다. 다른 선수들도 대동소이 했을 것이다.

최길수 감독은 1997년 2월에 명예퇴직했고 조동현 감독이 뒤를 이어 1년간 팀을 이끌었다. 그해 11월, IMF 외환위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스포츠팀을 유지할 분위기가 사라졌다. 제일 먼저 국민은행이 축구팀 해체를 결정하자 다른 은행도 이를 뒤따랐다. 기업은행 축구팀도 1997년 12월 19일 해체되었다. 감독, 코치, 선수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조동현 감독 : 미포조선 감독

조관섭 : 성남 풍생고교 감독

오희천 : 김포 통진고교 감독

김희천 : 제주 제일고 감독

오세웅 : 청주대학 감독

유진희 : 미포조선 코치

박금열 : 수원 삼일고 감독

박수덕 : 영남대 감독

강기욱 : 광운공대 감독

나머지 선수들은 영업점 업무에 복귀하였다. 기업은행 축구팀 해산 상황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자.

-실업3관왕 기은축구팀도 해체-

연일 계속되는 스포츠팀의 해체 도미노에 올 시즌 실업축구 3관왕 기업은행도 끼었다.

기업은행은 20일 체육진흥심의회를 열고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축구팀 해체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 기업은행은 22일 코칭스태프와 선수를 상대로 개별 면담한 뒤 희망자에 한해 내달 말 본사 및 지점에 발령을 낼 예정이다. 1969년에 창단, 금융계 축구단으로서 70·80년대를 주름잡았던 기업은행은 올 시즌 춘계연맹전과 실업선수권, 전국체전에서 잇따라 우승했다.

(동아일보 1997. 12. 21)

2004년 재창단, 명문팀의 전통을 살린 기은 사격부

IBK50년사 편찬반

사격팀 창단

2010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은 사격에서 나왔다. 개막 하루만에 50m 남자권총 단체전에서 중국을 누르고 우승한 데 이어,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중국과 북한을 따돌렸다. 이중 이대명 선수는 공기권총 개인전 10m 결선 금메달로 아시안 게임 첫 3관왕이 되었다.

여자 선수들도 기량을 발휘했다. 10m 공기권총 단체전·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을 추가했다. 김윤미 선수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 온 국민을 감동시켰다.

이와 같이 국위 선양과 국민 사기양양의 첨병인 스포츠가 사격이다. 사격은 1976년 12월 15일, 기업은행의 상설운동부로 등록했다. 뒤이어 1977년 2월, 이현주·전영숙·김옥춘 등 세 명의 선수를 영입하고 조규성 안전관리실 과장을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정식 창단되었다. 이때 10개 은행에서 동시에 사격팀을 창단하는 바람에 선수 스카우트에도 경쟁이 붙었다.

창단 다음해인 1978년 9월 22일,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태릉사격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기업은행 김양자 선수의 동메달 획득을 계기로 1979년 3월, 이 대회의 기록부장 겸 시설부장인 김중근 씨를 코치로 영입했다. 이때 서울에 온 IOC 위원들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간 여러 나라에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 이번에 태릉사격장에서 진행된 42회 대회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올림픽 개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88서울올림픽의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

사격 남자팀 창단과 초창기

김중근 코치는 1979년 초에 재무부장관기 금융단사격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청주 중앙여고를 졸업할 예정인 오희숙·손옥분 두 선수를 영입했다. 이들과 함께 훈련에 돌입,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손옥분(1962년 2월 5일생) 선수가 만18세 미만이어서 발령받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고민하고 있는데 남상진 행장이 우연히 연습장에 들렀다.

"사격팀의 애로사항을 말해보라."

행장께 바로 이 문제를 보고 하니 즉시 해법을 제시해주었다.

"18세 미만이라도 먼저 수습행원으로 발령내면 된다. 나이가 되면 그때 정규행원으로 입행시키면 된다."

마침내 1979년 4월 13일, 손옥분 선수는 재무부장관기 금융단사격대회에 아슬아슬하게 출전할 수 있었다. 기업은행은 이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이라는 감격을 안기도 했다.

한편, 그해 10월에 열린 제60회 전국체전에서 김양자 선수가 383점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를 박동희 행장께 보고하자 김종근 코치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여자부 우승만 있습니까? 종합우승은 안 됩니까?"

"예. 종합우승은 남녀선수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우리는 남자부 선수가 없어서 여자부 우승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남자선수도 뽑아 남자부도 만듭시다. 추진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당시 사격부장이던 안전관리실 김필두 실장, 사격부 단장 주일 이사의 재가를 얻어 남자선수를 선발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황의청·김종천·이상규·김익한·하준호 등 5명을 발탁해서 남자사격팀을 창단했다. 그해부터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하였고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1981년에는 청주 중앙여고 졸업예정인 이선옥 선수를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선수는 이런 반응이었다.

"입단제의를 한 ○은행에는 합숙소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은행이 좋지만 지방 출신인 자기로서는 합숙소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

그러자 김종근 코치는 이렇게 제의했다.

"그러면 합숙소를 내가 만들어 줄테니 대신 식사는 선수들끼리 자체 해결하기로 하자."

김 코치는 즉시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빌려서 잠실 1단지에 42㎡ 크기의 주공아파트를 전세냈다. 여기에 청주중앙여고 출신의 이선옥과 전남체고 출신의 김경옥 등 소총선수 2명, 목호여상 출신의 이영옥 등 세 선수를 입단시켰다. 목호여상 이영옥 선수는 전셋집이 마련되는 두 달 동안 임시로 김 코치 자택에 기거하기도 했다.

1983년 어느 날 김선길 행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

"사격팀 코치가 사비로 선수 합숙소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당장 여자선수 합숙소를 만들어 주라!"

덕분에 106㎡ 크기의 잠실 장미아파트에 합숙소를 마련했다. 8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

를 제외하고 5명을 입소시켰다. 이로써 선수들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선수 스카웃과 약속 이행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사격 2관왕에 올랐던 박정아 선수(1963생). 그녀는 1982년 충주여상 재학시부터 사격에 두각을 나타냈다. 김종근 감독은 박정아 선수의 잠재성을 미리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충주여상 체육담당 고효원 교사를 통해 미리부터 박 선수를 후원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졌다. 고 선생과 박 선수는 당연히 기업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진로를 결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모 은행이 이 학교와 거래하고 있었다. 그 은행에서는 충주지점장을 통해 교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박 선수에게 자행 입행을 강요한 것이다. 교장 또한 체육교사에게 압력을 넣어 박 선수를 ○은행에 입단토록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체육교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수 본인이 기업은행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제가 아무리 체육교사라 해도 본인의 의지를 어찌지는 못합니다.”

“담당교사가 자기 학생 하나도 설득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에 입행시키시오.”

김종근 감독은 박정아 선수의 아버지를 충주 탄금대에 모시고 갔다.

“물론 ○은행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내가 개인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물론 ○은행의 운동여건이 낫습니다. 대신 나는 박정아 선수를 가슴으로 난 딸로 여기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반드시 1년 안에 일류선수로 키워 국가대표 선수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기업은행에 입행시켜 주십시오. 우선 1년만 지켜봐주십시오.”

가슴으로 호소하는 이 설득이 주효했는지 이런저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박 선수는 기업은행을 선택했다. 박 선수는 입행 6개월만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김양자 선수와 함께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이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43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김 감독은 박 선수의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을 6개월이나 앞당겼다.

그러나 1982년 11월 8일, 제43회 카라카스대회 출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여자 단체전은 4위에, 김양자 선수는 개인 5위에 머물렀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이것이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박정아 선수는 1986년 9월 22일, 서울아시안게임에서 여자공기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관왕에 오르는 사격선수 생애 최고의 날을 맞았다. 당시 각 신문과 방송 모두 박 선수의 이야기로 가득 했다. 몇몇 신문은 박 선수와 그 어머니의 사진까지 크게 실었다.

이광수 행장은 사격팀 단장인 신주용 부행장보, 사격부장 이용률 안전관리부장을 대동하고 태릉사격장을 찾아 박정아 선수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그해 9월 22일, 경향신문은 박 선수 모녀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감격을 전했다.

-사격 선수 생애 최고의 날
이 영광을 농사짓는 부모님께
사격2관왕 박정아 양 “최대 라이벌은 내 자신”-

토끼처럼 귀엽고 앳된 용모의 박정아 양(23. 기업은행)은 2관왕이 확정되는 순간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젯밤 소망대로 금메달을 2개나 따냈기 때문일까.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차라리 깜찍하다. (경향신문 1986. 9. 22)

당시 상황을 보다 상세히 언급하면 행내에서도 난리가 났다. 행내방송에서 갑자기 흥분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깬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은행 소속 박정아 선수가 아시안게임 여자공기소총 단체전 경기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개인전에서도 1위를 차지,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터지는 환호성에 사무실은 떠나갈 듯 했다.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던 동료들까지도 입장권 구입에 열을 올렸다.

86아시안게임에서는 김양자 선수가 사격 동메달, 이민현 선수가 농구 은메달을 받아 기업은행을 빛냈다. 김중근 감독과 황의청 코치도 함께 행장상을 받았다.

감독님 신랑감도 구해주세요

김양자 선수도 사격으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실력파였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김 감독을 찾아와 말했다.

“나이가 차서 여러 번 맞선을 보았는데, 직업은 은행원이요 하는 일은 무엇이나고 묻기에 그때마다 국가대표 공기관총 사격선수라 하니까 남자들이 은근히 겁이 나는지 혼담이 깨지더군요. 김 감독이 신랑감 좀 구해주세요.”

맞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신랑감을 어찌 구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노기중 선수와 김양자 선수가 함께 김 감독을 찾아왔다. 둘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사격팀 내에서는 남녀선수간 연애편지가 원칙이었다. 이로써 이 규칙은 깨지고 말았다. 하지만 김양자선수의 어머니가 어깨에 지워준 짐이 풀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당시 안전관리부 김규석 부장이 맡았다. 이후 채근배·조승녀 두 선수도 부부가 되었다. 이 결혼은 당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사격팀 이런 저런 이야기

1990 베이징아시안게임에서 안병균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데 2위인 일본 선수와 점수차가 불과 0.4였다. 한 발 쏘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엇치락뒤치락했다. 1990년 10월호 사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1990년 9월 25일, 북경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펜싱 탁정임에 이어 당행 안병균 선수가 남자부 공기소총에서 금메달 소식을 안겼다. 중국과 일본이 사격에 강해 금메달 예상종목에서도 빠져 있었던 만큼 더욱 값진 금메달 소식이었다. 이때 상황을 김종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 야나기다 선수는 본선 1위로 올라왔지만 첫발에 9.9점, 안 선수는 10.1점을 올린 데서 실낱같은 가망성을 느꼈다. 6발째에는 안 선수가 뒤쳐져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7발째부터 야나기다가 뒤쳐지기 시작하더니 9발째 누계동점이 되었다.

마지막 1발을 조준하는 동안 긴장과 흥분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차라리 운명에 맡기자고 다짐하는 순간 야나기다 10.0, 안병균 10.4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순간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총점이 같으면 결선기록이 좋은 선수가 이기는 규정 때문에 안 선수가 0.1점이라도 앞서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일본 코치는 “김 상이 어쩌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고 나는 그만 주저 앉아버렸다”면서 역전패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선수는 이후 여러 사격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1991년 3월 24일, 미국 LA에서 열린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공기소총 부문의 한국기록을 갱신하며 소련 선수에 극적으로 역전승했다. 기업은행 사격팀의 각종 우승기록은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1992년 7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기업은행 황의청 코치가 국가대표팀 공기소총 코치를 맡아 지도했다. 당시 여고생이던 여갑순 선수가 황 코치의 지도 아래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기기도 했다.

황 코치는 또한 7월 15일 오전 11시경, 바르셀로나 올프클리크 사격장에서 선수들의 연습을 지켜보다가 북한의 김만철 선수 총이 고장 나서 찢찢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해주었다. 그는 코치로서의 지도력도 뛰어났으며, 전기공학도 출신답게 총 수리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장인이었다. 그 솜씨를 올림픽에서 북한선수의 총을 수리해주는 데까지 발휘한 것이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는 채근배·김성수 선수가 남자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1990년대 기업은행 사격팀은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수많은 신기록을 수립했으며 참가하면 반드시 우승하는 명문팀으로 성장했다. 또한 안병균·채근배·김성수·조승녀·김명희·오은희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격의 대들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속에서 1997년 12월 19일, 축구부와 함께 아쉬운 해산을 맞게 되었다. 이때 채근배·안병균·김명희 선수는 서산시청 사격선수로 옮겨가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점 현업에 배치되었다.

2004년 12월 사격팀의 재창단과 명성 재현

2000년대에 들어와 국가경제는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기업은

행의 경영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2004년 8월의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팀은 단신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불살랐다. 장신 숲의 외국선수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러시아와 127분에 걸친 경기를 펼쳤다.

여자핸드볼팀은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라는 감동의 준우승을 거두었고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강권석 행장은 온 국민이 하나될 수 있는 스포츠에 관심을 기울였다.

"IBK에는 왜 운동부가 없습니까?"

"상설운동부가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때 해체되었습니다."

"그럼 IBK 운동부를 다시 만듭시다. 우리 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키워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듯 인기종목보다 비인기 종목을 택하여 운동부를 다시 꾸려봅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창단 종목을 검토하다가 사격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관악지점 부지점장으로 있던 황의청 감독과 서산시청 소속으로 나갔던 안병균·채근배·김명희 선수들을 다시 모았다.

이후 2004년 12월 1일, 채근배 선수와 김명희 선수를 남녀 주장으로 선임하고 안병균 코치를 포함 모두 10명으로 사격팀을 재창단하게 되었다.

다음해 2005년 4월, 창원에서 열린 제3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 첫 출전한 기업은행은 남자 공기소총 단체 1위로 우승하는 영광을 맛보았다. 당시 영국 출장중이었던 강권석 행장은 런던에서 직접 경기장으로 격려전화를 걸었고, 축하화환도 보내주셨다. 창단 5개월 만에 거둔 성과에 선수들의 감격은 대단했다.

2005년 한 해에만 단체우승 4회, 개인우승 1회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특히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공기소총 단체 1위의 실력을 과시했다. 재창단 이후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기업은행 사격팀은 단체우승 25회, 개인우승 27회의 좋은 성적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김은혜·곽정혜·최수근·전동주 선수 등 4명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미완의 성공, 기은문화 운동의 시작

황한택⁹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습기를 거친 필자는 1971년, 기업은행과 함께 ‘이상과 꿈’을 키워나가기로 목표를 정하고 입행했다. 1971년 1월 23일 신입행원 연수를 마치고 사령장을 받았을 때, 당시 정우창 행장의 훈시내용이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다.

“우리 은행의 중흥 발전에 초석이 될 중견 간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 이래 처음으로 84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뽑았습니다. 오늘 사령장을 받은 여러분은 중견 간부로 성장할 사명감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자기 발전과 은행 발전을 이끌어 주십시오.”

사회 초년병이었던 필자는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현장 경험이 중요하리라는 판단 아래 지점 근무를 희망했다. 대구동지점(현 중앙지점)을 시작으로 인사부, 심사부를 거쳐 책임자로 승진했다. 이어 영동예금취급소, 기획부, 대신통지점, 동성로지점, 우이간이 예금취급소에서 대리 시절을 보내고 1984년 여신기획부 과장으로 보임되었다.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던 탓인지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기은맨으로서 철없었던 전반부를 불식하고 ‘은행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겠다’는 자신과 굳은 약속을 하면서 참으로 사심없는 열정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던 1985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향상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당시 석유사업기금에서 5,000억 원(산업은행 2,000억 원, 기업은행 2,930억 원, 외환은행 70억 원)을 전용하여, 단군 이래 최저 금리인 5%(당시 정기예금 금리 12% 수준을 감안)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전자공업 발전(박정희 대통령 시절 입안된 상공부의 전자공업 진흥 7개년 계획)의 초석이 되어 오늘날 IT강국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금융인으로서 당시 일익을 담당한 것이 늘 자랑스롭다. 특히 고락을 함께 한 정윤순, 정환수, 금동수 대리와 권숙희, 권지환 행원들을 잊을 수 없다. 그때에는 본지점 간의 연락을 위해 주간에는 정상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 통화량이 많았다.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왼쪽 귀의 청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98) 1971년 입행. 여신기획부 과장, 종합기획보 기획역 역임, 1992년 퇴직

그 후 1989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준비 기획단 업무를 맡아 종합기획부 기획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열심히 실명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 이에 재무부, 감사원, 국회 등 대외기관관련 업무와 은행 관련 정보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은행의 미래를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배길환, 조현식 등 2명의 대리책임자와 함께 은행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 연구와 신상품 개발 Task-Force 팀을 구성했다. ‘씨티은행 연구’, ‘신한은행 연구’, ‘기업은행과 Retail-Banking’ 등의 연구 자료도 이때 만들었다.

대외기관관련 업무와 은행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연구하고 있던 1990년 3월, 금융자본시장 개방이 추진되고 기업은행을 ‘민영화 내지는 민간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당시의 기업은행 체질과 여건으로는 기업은행이 생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근처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었다.

내부적 문제 : 국책은행으로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기업풍토

경영 환경 변화에 둔감한 내부지향적 체질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갈등구조 현상 심화

시중은행과 비교한 생산성 열위

외부적 문제 : (민영화된 시중은행과 대비했을 때)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재무부 업무 지휘 통제 등

연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사업외의 일로 낭비

이러한 문제의식의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을지 고민하던 중 마침 삼성그룹이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신문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수소문을 거쳐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윤순봉 씨(현재 삼성석유화학(주) 대표이사)를 만났다. 지금도 필자는 그를 인생 멘토로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그와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외부 컨설팅에 의한 기업문화개발(사업명 : START2000)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당시 행내 분위기는 “왜 우리가 삼성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 하는 부정적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달랐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인 금융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원가계산 개념부터 배워야한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내부의 자체적 추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외부 컨설팅에 의한 충격적 힘(특히 기업은행의 보수적 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마침 동경사무소에서 근무한 덕분에 선진금융기법을 이해하고 있던 민은홍 부장이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김봉규 이사의 격려까지 이어지면서 1991년 신년업무계획에 '기업문화 개발과 경영혁신에 대한 구상'을 보고드리게 되었다. 당시 안승철 행장으로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적극적인 동의를 받게 되었으니 그때의 자긍심이야말로 개인적으로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가운데 안승철 행장께서 1991년 3 월 퇴임했다. 이후 이용성 행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임사를 마친 안행장의 눈가에 맺힌 이슬, 그리고 필자의 손을 꼭 잡아 주던 체온이 지금도 남아 있는 듯하다.

그때만 해도 기업문화 분야에는 생소해했던 신입행장에게 10여 차례의 보고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직원들은 낭패감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박종대 부행장께서는 조용히 필자를 불러 "이 사업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분발하라"는 격려와 당부 말씀을 해주곤 했다.

그 말은 용기백배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직원들과 은행 뒷골목 주점에서 생맥주를 통음하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완호, 곽재남, 이진삼 등 책임자들과 20여 명의 사무혁신추진 주체인 '혁신 스태프'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었다.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1년 8월에 기업문화 사무국을 설치했다. 우선 기업문화운동을 추진할 전담요원들의 의식 전환과 정신적 무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담요원은 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측에서 각각 선발했다.

은행 : 황한택, 반완호, 곽재남, 이진삼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식 이사(단장), 윤순봉, 김의현, 이진호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선으로 일본의 선진 일류기업들에 대한 기업문화 혁신사례 수집을 겸한 시찰 연수가 추진되었다. 금융권으로는 제일권업은행, 스미토모은행, 일본생명(주), 제조업으로는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공기업으로 일본JR, NTT가 대상기업으로 확정되었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기업들을 섭외한 삼성 측의 저력과 추진력에 필자는 깜짝 놀랐다. 연수는 하루에 2개 기업을 방문하고, 1개 기업에 평균 3~4시간씩 강의식 사례소개 형태로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그 날 교육받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리뷰했고, 밤11시까지 복습·토론하며 정리하였다. 당시 동경사무소를 거쳐 인력개발부 기획역으로서 근무하면서 기업문화사무국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통역을 도왔던 민주현 입행동기는 일본 연수시찰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매일 2개 기업을 방문하며 하루 7~8시간씩 강의식 연수가 끝나면, 모두가 지쳐 빨리 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주관하는 삼성연구소 직원들은 석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날 강의내용들을 리뷰하면서 복습·토론·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정이 넘기 일쑤였지요. 처음엔 시찰연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해외에 나가 시찰전문하고 귀국 후 보고서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철저하고 집중도 높은 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삼성문화가 아닌가? 오늘날의 삼성이 된 것은 그런 철저한 업무 집중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시찰 연수 후에는 본부의 모든 임원과 부장들을 대상으로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의 연수를 진행했다. 이 연수는 삼성인력개발원이 생긴 이래 외부기업에 개방하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우량 협력업체들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 안에 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한다.

때마침 정부는 금융자본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었고,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허용문제가 거론되던 차였다. 만약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삼성그룹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기업은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당시 삼성그룹 고위층의 특별지시로 당시 미국에 연수 중이던 이필곤 삼성물산 부사장을 급히 귀국시켜 연수 강사로 투입하는 등 삼성은 많은 열정을 보였다.

일본 선진기업들의 문화혁신 사례와 전 임직원 대상의 설문조사(1991년 10월 5일~10월 31일) 결과⁹⁹⁾를 참조 삼아 1991년 10월 ‘업무추진 및 향후 발전방향’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적인 실천에 돌입했다.

학문적인 이론과 일본기업 시찰 연수 토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 문화 개발은 우선 의식의 변화를 토대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순서로 추진해야 하며, 그 주체는 중간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Middle up-down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시대정신과 한국적 기업 풍토 등을 감안하여 ‘형식이란 참 중요하다. 평상복을 입을 때와 정장을 입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이라는 말을 금과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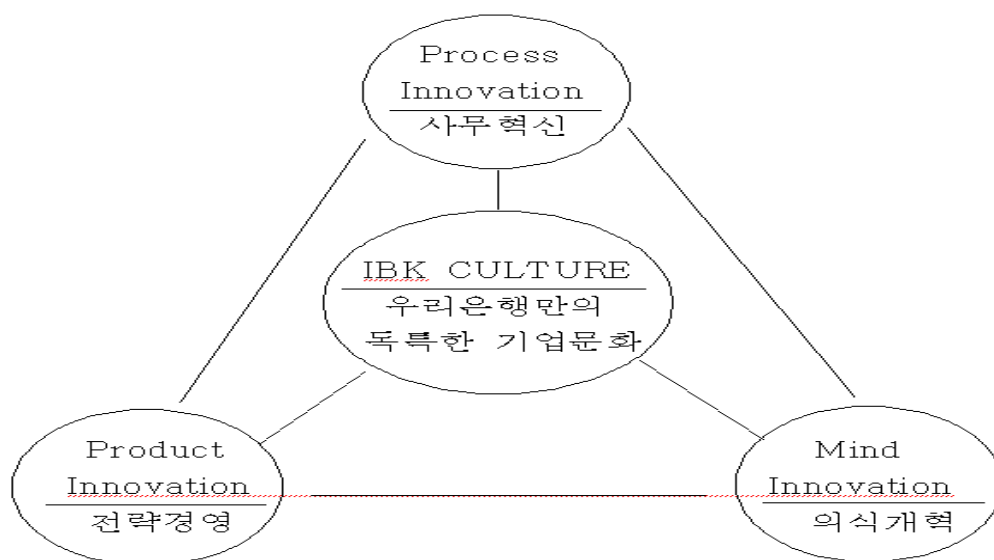
99) 직원설문조사 결과 요약

- 내부조직풍토의 침체
 - 조직분위기 : 단결력이 약함
 - 의사소통 : 상하간의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원활성이 적음
- 경영에 대한 직원인식
 - 대부분의 직원이 경영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식(65.3%)
 - 직원이 보는 경영위기의 5대 증상
 - ① 관료, 권위주의
 - 간부직원의 의식개혁 필요(78.9%)
 - ② 업무의 비효율성
 - ③ 지나친 관리위주 경영
 - 대폭적인 권한위양 필요(71.2%)
 - ④ 내부지향적 체질(고객 욕구에 대응력 미흡)
 - ⑤ 승진정체

조로 삼았다. 결국 사무 혁신이란 형식의 행동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된 행동에 의해 의식개혁이 일어나는 순으로 방향을 정했다.

두번째는 Middle up-down 방식 보다는 CEO가 중심에 서는 강력한 Top-Down 방식을 채택하여 시간을 절약하며 창립 30주년을 제2창업의 원년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1) 기은 문화 개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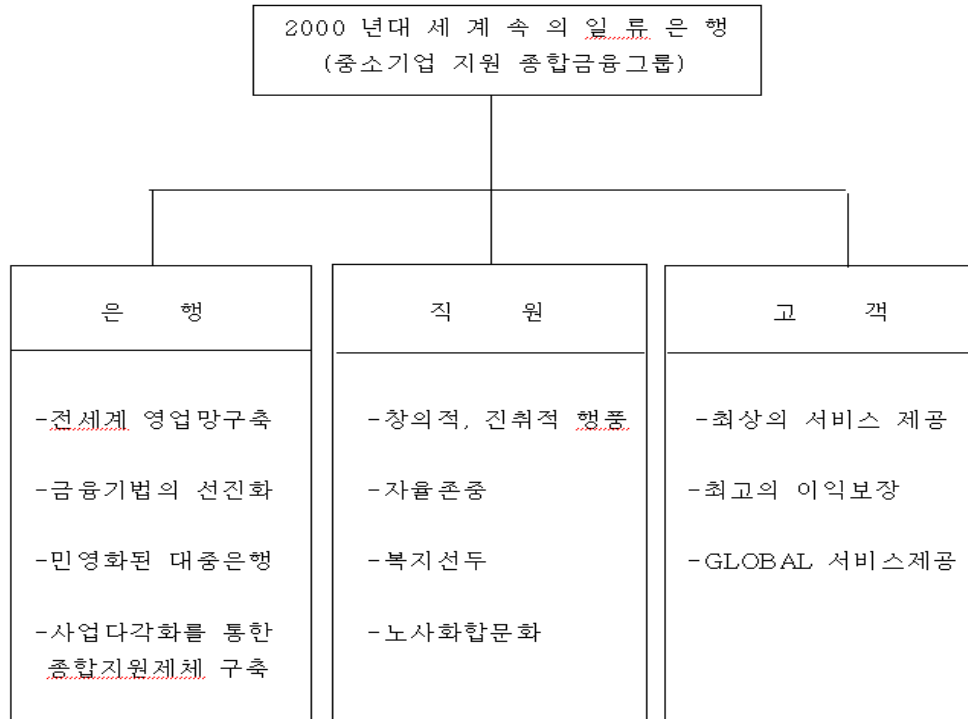


※ 기은 문화의 정의

-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란 국가, 사회문화의 하부구조로서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체계나 행동규범
 - 따라서 기업문화란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 외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풍토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 기업문화가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기업문화가 전략경영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기은문화(I.B.K CULTURE)란
 - 많은 기업들의 기업문화중 우리은행만이 30년간 만들어온 독특한 조직문화 임
 - 우리은행의 문화중 인간관계의 끈끈함, 중소기업 전문지원 금융기관으로서의 독특함 등 장점도 많음
 - 반면 단기기업적주의, 적당주의, 형식주의, 부문우선, 주인정신결여 등 부정적인 면이 강해 향후 영업경쟁력 우위확보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당시의 업무 계획 자료를 토대로 기은문화개발의 대강을 소개하고자 한다.

※ 2000년대의 장기 Vision



※ 운동 명칭 : START 2000

-2000년 세계속의 일류은행을 향한 전직원의 힘찬 출발

S : Super Bank (최고의 은행)
 T : Top Service (최상의 서비스)
 A : Active Mind (적극적인 사고)
 R : Responsible Action (책임있는 행동)
 T : Team Work (협동정신)

※ 활동기간 : 92.1. ~ 93.12.

가. 1단계 : 91. 9 ~ 92. 8

- 사무혁신 중심으로 추진

나. 2단계 : 92. 8 ~ 93.12

- 새로운 기은문화개발 중심으로 추진

※ 추진방향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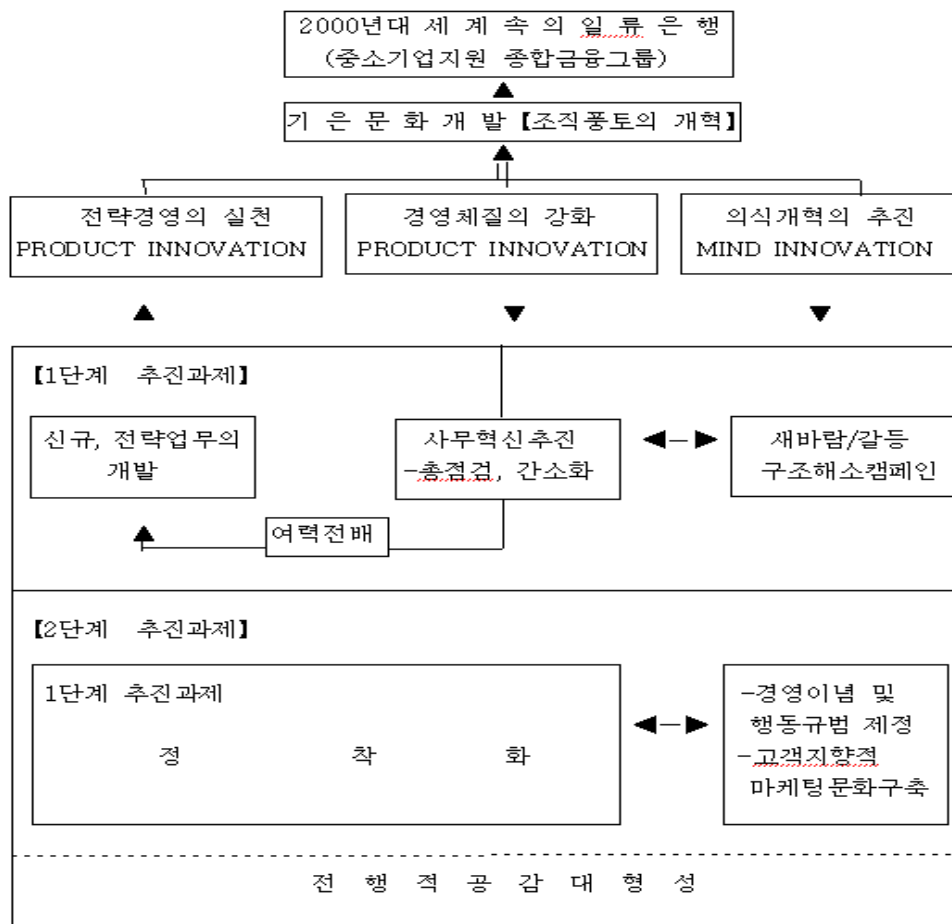
-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은문화개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추진

① 1 단계

- 사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화 달성
- 효율화로 창출된 여력인원을 기업은행 중점 전략과제에 재배분
- 직원의식 개혁을 위한 캠페인 동시 실시

② 2 단계

- 1단계 추진과제 정착화를 통해 직원생산성 제고
-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경영이념 및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고객지향적 마케팅문화 구축
- 장기적으로 진취적인 기은문화로 조직풍토를 개혁



기은문화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제1단계로 우선 사무혁신을 추진했다. '낭비·비능률 업무 30% 감축'을 목표로 '나의 일과 업무 분석표(Self Task Analysis Report)'라는 형식으로 하루 일과를 스스로 30분 간격으로 1개월간 작성(1991. 10. 28 ~ 1991. 11. 27)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업무 파악과 함께 업무처리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였다.

뒤이어 1992년 4월에는 보존문서 폐기운동(IBK CUT30캠페인)을 전개하여 부서별 보존문서의 32%(목표 : 30%)를 폐기하는 실적을 거둬으로써 사무혁신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인식시켜 나갔다. 그때 본점 지하 1층에 산더미처럼 모아진 폐기 문서가 10톤 트럭으로 3대 분량이 넘었던 기억이 새롭다.

'내가 변하면 은행도 변한다'는 일념과 열정으로 '경영혁신과 새로운 기은문화 개발'을 향한 봉화대의 불을 붙이며 동분서주했던 그 시절이 그림기만 하다.

필자는 1992년 5월, 너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기업은행을 떠나게 되어 많은 '기은인'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인생 역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사랑하는 기업은행은 이것을 불씨로 삼아 '고객만족경영 실천', '기은새바람운동'으로 계속 기업문화운동을 전개했고, 오늘날의 훌륭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러나 장진석, 배병열, 박중수, 김인환, 이경준, 김완표, 한용호 등 가슴에 묻고 사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중도하차한 일, '미완의 성공'으로 끝난 일 등은 여전히 인간적 회한으로 남아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세대로서 인생 제2막을 살아가면서 디지털, 스마트 시대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변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진행되어 감을 절감하고 있다. 세계적인 변화전문가인 존 코터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시대정신을 앞서가는 변화와 혁신은 항상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벽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어느 조직을 가든 변화를 시도할 때면 '돈이 없는데요, 인력이 없는데요, 예전에 이미 시도했는데요'라는 핑계와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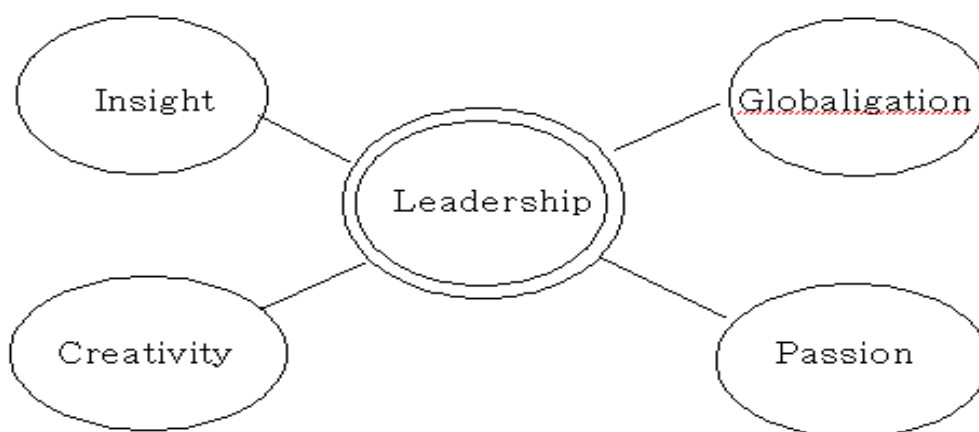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인간은 먼 훗날까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최적인 해(解)'보다, 현재 당장을 위한 '최적인 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과 기업은 영구히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존재(Going Concern)인 만큼 장기최적(Long-term optimization)은 필수적이다. 장기최적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인간 굴레(human bondage)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임을 (삶의 正道 <윤석철 저>에서 인용)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소중한 가치가 많겠지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은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투자일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매일경제신문 40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기사 내용 중 '미래 디자이너 요건'을 소개하면서 후배들 개개인의 발전이 은행의 성장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자 한다. 장점보다는 인간적인 약점이 더 많은 필자를 보완하면서 인내와 지혜로 함께 살고 있는 행내 커플 아내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미래의 디자이너 요건



[제6부. 인사·홍보·문화] Story_16

따뜻한 기은가족 경조문화 만들기의 기수 (IBK 경조사 지킴이 김성근¹⁰⁰ 지점장 이야기)

IBK 50년사 편찬반

혼례와 초상은 대표적인 인생대사로 통칭 애경사 또는 경조사라고 부른다. 기은가족의 경조사 현장에 가 보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 첫손가락을 꼽으려면 누구나 주저 없이 김성근 전 지점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경우 '약방의 감초' 같다는 말을 하지만 김 지점장의 경우는 감초를 넘어 아예 '약방의 약탕기'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김 지점장은 재직 중에는 거래처 경조사 챙기기로 유명했다. 그런 계기를 통해 거래기업과 유대를 강화한 것은 물론, 지금은 퇴직동우들의 자녀혼사 부모초상에도 나타나 깊은 정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리할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요, 자기 체질이라 기꺼이 하는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따뜻한 DNA를 타고 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지점장의 고향은 춘향전의 무대인 남원이다. 그리 멀지도 않은 옛날,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열악했던 그 시절 고향에는 하룻밤 묵을 길손은 물론이고 떠도는 걸인들이 많았다. 할아버지는 이들을 사랑방에 재워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꼭 먹여서 보냈다. 거의 매일이라 할 정도로 사랑방에는 하룻밤을 묵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6남매와 이 사람들까지 수발하느라고 어머니는 모진 고생을 하셨다. 할아버지가 그러니 할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으니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밴 것이다.

돌이켜 보면 웃어른들은 과객에 대한 단발성 배려였는데 김 지점장은 고객에 대한 지속적 관리형 배려와 챙기기가 체질화된 사람이다.

타고난 이웃 배려가 가져온 은행 업무개선

김 지점장은 1983년부터 과장으로 3년, 1993년부터 차장으로 3년 검사부에 근무했는데 특히 대외기관 담당자로서 감사원을 맡았다. 주요 업무는 기업은행과 감사원 사이의 연락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점장은 감사원이나 기업은행 담당자들의 집안에 애경사가 생기면 이를 빈틈없이 챙겼다. 사무분장으로 담당업무가 바뀌어도, 지점에 발령나도 언제나 한결 같았다.

100) 1968년 2월 입행. 충무로·광명·전주압구정동·신길동지점장 역임, 2005년 퇴직

인생에 애경사는 꼭 혼사나 초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행로에는 크고 작은 경조사들이 많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서 기쁨을 축하하고 슬픔을 위로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마음을 열고 진심어린 교류를 하게 된다. 그는 만나서 식사할 일이 생겨도 언제나 먼저 비용을 부담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미안해해도 흔들림이 없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주식을 잘 팔아 5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사람을 안심시키곤 했다.

그런 영향 덕분인지 감사원 담당자들과의 인연은 퇴직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김 지점장이 이뤄놓은 끈끈하면서도 인간적인 유대 덕분에 개선된 제도도 여럿이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다.

먼저 한은 재할차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자금을 한은 재할차입 들어갈 때 담보용으로 차주어음을 일일이 복사하여 첨부하였다. 사실상 별 의미도 없고 번거롭기만 했던 이 요식행위를 개선하여 당행 어음첨부로 대체시켰다. 김 지점장이 감사원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은 여신차주 담보물에 대한 변경이다. 이전까지는 재감정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4년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감독원 규정에 꼭 막혀 있던 재감정기간을 대폭 느린 것으로, 2년마다 적잖은 감정료를 지출하는 것은 차주에게 큰 부담이요, 기업은행 업무처리 면에서도 불필요한 절차였던 것이다.

이웃이 지켜본 나눔과 배품과 봉사

오랫동안 김 지점장을 옆에서 지켜본 박상현 지점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첫째, 김 지점장은 명절만 다가오면 기은 동우들에게 돌김을 선사했다. 수령자는 입행 동기생 30여 명, 2002년 퇴직 동기생 30여 명, 재직 중 반포지점과 신길동지점 근무동우 각 20여 명 도합 100여 명이다. 친척과 친구, 동창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덕분에 입행동기들의 부인들은 김 지점장 이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해마다 어김없이 추석 전에는 김 지점장 이름으로 동양수산 ‘대천청해심 돌김’을 받았다. 이 돌김을 한번 맛 본 사람은 그 맛과 질이 좋아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김이 떨어지면 그 김을 다시 주문한다. 언제나 변함없는 김 맛에 다른 김은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 정직하게 좋은 김을 만들어 보내니 김 지점장도 같은 곳에 해마다 주문을 넣었고, 받은 사람들은 또 그곳에 추가 주문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상생의 참모습이요, 사업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요즘도 주변에 경조사가 생기면 김 지점장이 전부 연락한다. 혼사는 예고가 되어 있지만 초상은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 반드시 연락이 필요하다. 연락 대상은 2002년 퇴직자 모임인 동심회원 35명이었다. 초상 빈소가 지방에 차려지면 차안에서도 전화를 받는다.

“내가 사정상 못가니 부의금을 좀 전달해주시오. 돈은 계좌 송금하겠으니 부탁드립니다.”

한편 경조사가 생기면 그는 안주머니에 사인펜과 부의(축의)봉투, 현금 50만 원 정도를 찾아서 넣고 다닌다. 평균 10건 이상의 봉투를 배달하는 데, 15건이 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돈을 찾았고, 봉투에 내용과 이름 쓰기에 매달렸는데 나중에는 방명록 서명까지 웃으며 대신해준다.

혼사와 초상이 겹쳐서 100만 원 넘게 돈을 찾았던 날도 여러 번 있었다. 실제로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는 넥타이를 두 개를 준비하고 다니기도 했다. 가히 ‘움직이는 경조사 가방’이자 ‘경조금 택배원’, ‘IBK 경조사 지킴이’라는 별칭이 붙을 법 하다. 그래서 ‘김 지점장이 안 오면 결혼식은 무효!’, ‘김 지점장이 나타난 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구’ 등 많은 농담이 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고 더구나 지각한 때는 더더욱 없었다. 지난 가을 어느 결혼식에 김 지점장이 안 보였다. 알고 보니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딸과 사위 소생 외손녀 돌잔치로 출국한 것이었다. 이런 사연을 미리 알리고 축의금을 송금한 후 다녀왔다는 것이다.

김 지점장은 자녀가 셋인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은 딸이다. 이 세 자녀의 혼사가 모두 끝났다. 이 말은 축의금을 3번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 지점장은 청첩장을 받으면 꼭 “청첩장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몇입니까”라고 확인했다. 만약 청첩인의 자녀가 하나라면, 3번 받은 축의금 해당액을 가지고 간다. 둘이라면 3번 받은 금액의 반을 가지고 간다. 내가 받은 성의를 그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 결혼식 때 사정상 축의금만 보내고 못 오신 분 중 1942년생 이전 출생 선배 300여 명에게는 답례로 예의 ‘대천청해심 돌김’을 택배로 보냈다. 김도 잘 받아 고맙거니와 참석 못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답례품을 보내주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는 선배들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김 지점장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매년 기업은행 달력 50부, 이름 새긴 수첩 100부를 준비하여 주변 인사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한 점포에만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신길동지점과 반포지점에 반반씩 부탁한다. 퇴직 지점장이라고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재직 때와 다름없이 예금유치를 해놓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애경사의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분은 김승경 전 행장, 황용범 전 이사, 한철수 전 전무, 강세중 전 이사, 노영완 전 지점장, 노재선 전 지점장 등이다. 기은가족 경조사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분들인 것이다.

사보 담당 10년을 돌아보며

이진민¹⁰¹⁾

창립기념사보 제작만 9차례

나는 홍보실(현 홍보부)에서 1995년 10월부터 2005년 말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보를 담당했다. 덕분에 창립기념호만 9번이나 만들었다. 2001년 8월에는 창립 40주년 특집 기사 ‘지나온 40년, 다가올 40년’을 구성하기 위해 1961년 생활상을 담은 사진을 구하려고 각 신문사와 도서관을 뒤지고 다녀야 했다. 당시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다.

그해 조사부 이충희 과장(현 제천지점장)이 ‘기은 40년사’ 편찬에 쓴다고 귀한 자료사진을 잔뜩 빌려갔다가 나중에 마구 뒤섞인 채 반환한 적이 있다. 특히 일부가 분실되는 바람에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 나 역시 그때 도서관에 딱 한 권 있던 <기은>지 창간호 표지를 몰래 가위질했었다. 15년 전 사보팀에 전입되었던 첫날, 담당 대리의 일갈이 귀에 쟁쟁하다.

“이건 은행의 역사고 목소리다. 네 일기장에다 할 말을 여기 늘어놓지 마라.”

그 말은 이후 내 사보편집 역사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다.

‘기업은행 사보’ 같지 않은 사보 만들기

1996년을 전후로 사보는 점차 ‘읽는 사보’에서 ‘보는 사보’로 변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면서 제작기간은 대폭 단축되었다. 사보 담당자 수도 6개월마다 줄어들더니 1999년이 되자 덩그러니 나만 남았다. 그래도 결재라인은 필요해 공보담당 안해성 과장(현 무교지점장)이 겸임하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 때문에 최소로 축소된 사보는 성과를 인정받기 힘들면서도 그 자체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행여 오타라도 나면 추궁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과장님은 당시 주무가 대내외 언론을 관리하는 공보였음에도, 특종 기사를 사보에 양보할 정도로 사보의 위상 높이기에 적극적이었다.

이때 단행한 것이 제호변경,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기업은행의 약칭인 <기은> 제호에 익숙한 직원들은 물론, 경영진도 내키지 않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새 감각의 제호가 필요했다. 일단 결정된 이상, 의견이 많아질수록 변경이 힘들어지므로 미리 제호를 정해놓고 본점 부서에 설문지를 돌리는 절차를 밟아 조사를 이틀로 끝내고 결재를 올렸다.

<느낌이 좋은 사람들> 부제는 당시 당행의 서브네임 finebank에 맞춘 fine people 이

101) 1995년 2월 입행. 홍보실 계장, 북부지역본부 대리, 현재 강북지역본부 영업지원팀 차장

었다.

그 무렵 IMF를 견뎌내고 재기에 나선 사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내보와 사외보의 분리 발간이었다. VIP고객 대상 사외보는 고급 용지와 전문 스튜디오 촬영, 광고와 협찬소품을 도입하여 패션지 못지않게 화려하게 제작되고 있었다. 반면 사내보는 전자사보 형태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MBC 라디오에 협찬형태로 발간되는 월간 <여성시대>가 실질적 사외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고객들의 호응도가 커서, 별도의 사외보를 발간하기엔 예산도 명분도 부족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내보로 축소시킬 수도 없었다.

기존의 2만 여 고객독자에게 500원(당시 1권 단가)으로 대체할 만한 홍보상품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독자의 관심을 끌고자 <느낌이 좋은 사람들> 제호에 어울리는 일러스트 표지를 도입했다. 또한 재미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기사를 찾아서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했다. 시골 장터·대장장이·산골로 유학 간 도시인·한겨울의 숯가마 등 흥미와 감동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 취재했다.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최대한 기업은행스럽지 않은 기업은행 사보 만들기'였다. 적어도 사보를 받아본 고객만이라도 '기업은행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는 시도였다. 덕분에 2001년 말에는 '한국사보기자협회'로부터 사외보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finebank 대신 IBK를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게 되면서 2005년 'with IBK'로 제호를 바꿨다. 이번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설문조사를 거쳤지만 절차는 비슷했다. 당시 모든 과정에서 믿고 힘을 실어주신 유영천 부장, 정희남 팀장(현 을지6가 지점장)께 감사드린다. 재미있게도 2001년 제호 변경시 <기운>을 고집했던 분들이 그때에는 <느낌이 좋은 사람들>에 애착을 보였다는 점이다.

자판기형 필자와 세무서형 필자/뽕샘 편집과 덧샘 편집

글 쓰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하다. 매달마다 원고 몇 글자 고쳤다고 노발대발하는 필자가 있었다. 이런저런 부분이 은행과는 맞지 않으니 고쳐주십사 부탁드리면 그럼 실지 말라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럴 땐 편집을 고치거나 다른 원고를 실지만, 정말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내 글이 전문필자의 이름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 몇 호인지는 절대 비밀이다.

사보 담당자는 주제만 톡 던져주면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 기사가 척척 나오는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긴 하룻밤에 기사를 써서 떡하니 결재 올리던 선배도 있었지만, 나는 마감 직전까지 안간힘을 다해 쥐어짜던 '세무서형'이었다. 때문에 간혹 내 기사도 밀려 있는데 타 부서에서 '경영진 말씀'이라며 써달라고 부탁해오면 속으로 는 죽을 맛이였다.

한편, 나는 원고 교정시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미사여구를 과감히 삭제하는 ‘빨셈’ 편집을 고수했다. 상사인 안해성 과장은 재미있는 표현을 넣어 글에 활력을 주는 ‘덧셈’ 방식이어서 초기에는 결재 올릴 때마다 부딪쳤다.

안 과장은 다소 건조했던 내 기사를 가히 난도질이라 할 정도의 거침없는 교정으로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나는 빨간펜으로 이런저런 수식어가 잔뜩 붙어 돌아오면 얼굴을 붉힌 채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고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패심했을까. 하지만 과장님은 한수 위라 마감 직전까지도 성에 안 차는 원고는 거침없이 반려했다. 소음과 종이가루 속에서 밤새워 교정본 것도 완벽하기 전에는 애썼다는 덕담 한마디 없었다.

돌이켜보면 만족스런 기사를 위해 휴일에 몰래 재취재·재촬영을 감행하며 땀 덕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장한 것 같다. 제호변경, 판형확대 등을 진행하면서 눈앞의 일거리에만 급급하다 차츰 전체를 보는 시각도 생겼다. 안과장이 2004년 지점장으로 승진, 홍보부를 떠나자 그야말로 중간 상사도 없이 나 혼자 남았는데, 이후 몇몇 후배들과 함께 일해보니 티격태격하더라도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애증(?)을 나눈 상대가 제 혼자 잘하는 직원보다 훨씬 애정이 갔다.

콜센터 재촬영의 숨은 비밀

잘 찍은 사진 한 장은 수십 장의 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경험상 잘 쓴 기사보다 잘 찍은 사진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특히 거래기업 사장님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고 내방자에게 자랑하기도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2002년부터 고객기사가 나온 페이지 전체를 인화, 액틀에 담아 거래 지점장이 전달토록 했다. 그러자 책자만 보냈을 때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인물사진 잘 찍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더구나 나는 홍보실 오기 전까지는 똑딱이 카메라 작동법도 몰랐던 기계치였다. 그래도 닥치면 한다고, 일단 무조건 셔터를 많이 누르는 식으로 촬영을 익혀나갔다. 그러자니 온갖 포즈를 강요하기 일쑤였고 수없는 반복촬영으로 취재대상을 고생시켰다.

2004년 콜센터(현 IBK고객센터) 전체를 취재했을 때의 일이다. 지금은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서가 되었지만, 그때도 주요 몇 팀만 모였는데도 30명이 넘었다.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바짝 붙어라”, “환하게 웃어라”, “전화 받는 포즈를 취해라”, 30분 넘게 실컷 고생시키고 돌아와 카메라를 열어보니 아뿔사! 필름이 없었다.

지금이야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유무가 액정화면에 표시되지만, 필름 카메라 촬영에는 간혹 그런 실수가 생긴다. 자존심상 사실대로는 못 밝히고, 서무 책임자 이윤호 과장(현 가산디지털 부지점장)께 전화를 걸었다. “부서원들 표정이 밝지 못하다”, “기업은행 대표 서비스 부서인 콜센터인데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일정이 급하지만 다시 찍어야겠다고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다시 모인 콜센터는 원래도 환한 표정이면

서 센터장님부터 하나같이 최대한 더 크게, 더 환하게 웃느라고 입가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애를 썼다. 속으로 참 미안했는데 그 사진이 잘 나와서 천만다행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역시 ‘엽서 추천’

사보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코너는 은행 이슈를 다룬 메인기사나 잘 나가는 핵심인물 인터뷰가 아니다. 맨 뒷장 애독자 엽서추첨이나 숨은그림찾기 같은 작고 부담 없는 코너다. 부담이 없어서 오히려 인기였던 것 같다. 인터뷰하자면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엽서추첨이라면 선선히 응해주었고, 독자 또한 메인기사 주인공에 대한 선망과 거리감 대신 “어, 영업부 노총각 아무개 아냐?”하며 주변 사람이 나왔다고 반가워했다.

여기에 재미를 좀 더하려고 추첨자 촬영자세를 바꾸고 추첨자를 미혼남녀로 선정해 다정한 포즈를 취하게 했는데, 과연 기대 이상이었다. 사보를 받아들면 맨 끝부터 찾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거기에 고무된 나는 사진 컨셉을 아예 ‘웨딩’에 맞추고 돌사진 촬영기사처럼 온갖 재롱을 부려가며 “더 가까이, 더 다정히”를 요구하다 나중에는 아예 대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찍었다.

자극은 상승시켜야 효과가 있는 법, 아무리 다정한 포즈를 취한다 해도 동료직원들끼리야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차츰 웨딩컨셉도 식상해지자 우정·라이벌·개그 컨셉까지 도입시키며 인기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제는 전자설문이 엽서 대신 등장해서 추첨사진 찍을 일도 없겠지만, 1990~2000년대 중반까지 본부에서 근무한 웬만한 젊은 남녀직원들은 한 번씩 엽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만약 담당 팀장님, 부장님이 “나도 한 때는 장동건이었다”라고 자랑하신다면 도서실 사보 과월호 맨 뒷장을 보시라고 권한다. ‘그 때 그 시절 증명’이 다 거기 있으니까.

엽서추첨자 중 베스트를 꼽는다면 1999년 12월 31일, 새 천년을 앞두고 행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밀레니엄버그에 대비하여 밤새 두 눈 부릅뜨고 전산시스템을 지켰던 IT부의 6명, 이른바 ‘독수리 6형제’의 믿음직스러운 2000년 1월호 추첨사진이다.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구성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없는 사보는 장수할 수가 없다. 매월 사보의 마지막 원고를 넘길 때마다 짚어진 생각은 ‘좋은 사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어야 한다’는 자각이었다. 어쩌면 그건 기업은행이라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은행사랑과 동료사랑·신뢰가 깊은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덕분이 아닐까 싶다.

사보담당 10년간 전국 영업점에서 내로라하는 우수 마케터, 히트상품 개발주역 등 이른바 은행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많이 만났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IBK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이었다. 그들 대부

분은 지금 IBK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로서는 큰 영광이다. 그리고 홍보부를 떠나 영업점 지원업무를 보면서 새로이 느낀 점은 그 이면에 녹아있는 많은 직원들의 땀과 열정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사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얼마나 더 명맥을 유지할지는 모르겠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개개인에게 능력발휘를 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해서 인쇄사보는 수년 내에 없어질 것이라는 이도 많다. 하지만 사보 한 권은 그 자체 만으로도 기업은행과 고객·직원·가족,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의 역사요 추억이 된다. 정말로 모든 사보가 모바일 서비스 체제로 바뀐다 해도 기업은행 사보만큼은 50년 동안 은행을 키워온 선배님들의 깊은 애정과 내공을 바탕으로 진실을 담아내는 행간만큼은 꼭 지닌 채, 다시 쌓여 갈 50년을 담아내기 바란다.

[제6부. 인사·홍보·문화] Story_18

<예술의 전당>에 새겨진 'IBK챔버홀'

김광영¹⁰²⁾

<예술의 전당>은 1988년 개관이후 많은 시민이 찾아와 예술과 여가를 즐기는 우리나라 최고 복합아트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IBK는 문화예술지원이라는 사회공헌과 고객에 대한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건립하는 음악당 “IBK 챔버홀”을 후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감성과 문화의 시대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IBK 챔버홀을 통하여 IBK와 더욱 친근해지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그 후원과정을 소개한다.

은행과 예술!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

2010년 3월, 기관영업부 강성구 부장이 나를 불렀다.

“김 팀장!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당을 건립한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좀 알아보세요. 후원을 검토해 보아야하니까.”

“예술의 전당이라구요?”

나도 모르게 반문이 나간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갑자기 음악당 건립 후원이라니. 이전에도 예술의 전당을 방문한 적은 있었으나 신규기관 유치 차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술의 전당과 은행은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았다.

우선 내용을 알아보러 예술의 전당으로 갔다. 만날 사람은 정동혁 음악부장.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저희 예술의 전당은 지금 중간 규모의 음악당을 신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건축비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액 규모는 80억원입니다. 그 대신 향후 20년 동안 후원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므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뒤이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인 S그룹에서 음악당 건립 후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오너 일가가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실무팀장으로서 수많은 생각이 서로 발목을 잡았다.

‘음악당 건립? 꼭 후원해야 되는 일인가?’

‘80억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중소기업의 동반자를 자처하는 당행에서 중소기업과 동떨어진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 거액 후원하는 일이 정서에 맞을까?’

102) 1992년 입행, 구로동지점 대리, 마케팅전략부 과장, 현재 기관영업부 팀장

‘혹시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냥 현황과악만 하다 보면 S사와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데 수차례 예술의 전당을 방문하면서 이런 생각들은 눈 녹듯 사라졌다. 나중에는 한결을 더 나아가 내 마음이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예술의 전당을 자주 찾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니 대다수가 부유층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온 젊은 엄마들,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로 음악분수 인근은 늘 북적이고 있었다. 음악회나 전시회를 보러 오는 관람객보다 공원 같은 휴식공간으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강남의 심장부에서 IBK기업은행을 홍보할 수 있다면. 일회에 그치는 홍보가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이나 IBK 명칭이 들어간 음악당이 회자된다면. 1년에 380회 정도 열리는 IBK 챔버홀¹⁰³⁾ 음악회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다면’

곰곰 생각해 보니 앞으로 우리 시대는 ‘감성과 문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 분명했다. 비록 계량화로 수치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20년이라는 장기간의 홍보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거기에 당행의 개인금융 확대 등 여러 부문에서도 유용한 점이 많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는 이런저런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당행의 이미지 창출, 수익의 사회환원, 문화마케팅과 사회공헌이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나 스스로도 놀랄만한 생각의 변화였다.

은행장보다 더 통이 큰 부장

후원을 결정짓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은 후원 금액 결정이었다. 예술의 전당 박성택 처장 및 실무진과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만남과 협의를 통해 80억원 가운데 후원액은 50억원, 나머지는 대출로 가닥이 잡혔다. 강부장이 윤용으로 행장께 1차 보고 드렸다. 그러자 윤행장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어허, 강부장은 은행장보다 더 통이 크구만.”

영문을 몰랐으나 나중에 보니 기가 막힐만한 일이 있었다. 사실은 이미 예술의 전당에서 윤행장께 후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행장은 80억원 후원이라면 당행보다는 산업은행으로 가보시라고 정중히 거절한 바 있었던 것이다. 행장이 금액 때문에 거절했던 일을 부장이 들고 갔으니 ‘은행장보다 통 큰 부장’으로 이야기 될 수밖에.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S그룹과의 경쟁이었다. S그룹에는 건설회사도 있었고, 특히 부회장이 적극 관심을 보이는 등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무엇보다 당행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성이 큰 국책은행이라는 점이었다.

그런 가운데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S그룹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당행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끌어낸다면 일이 보다 쉬

103) *챔버홀은 2~25명 정도의 연주자가 실내악을 연주하는 500~600석 규모의 음악홀이며 이보다 큰 것은 콘서트홀, 작은 것은 리사이트홀이라 한다.

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무진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한 끝에 ‘행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술의 전당 사장 이하 임원들이 우리 본점에 내방, 당행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

9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안 설명회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CJ의 사례는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즉, CJ의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내의 연극무대인 ‘토월극장’을 리모델링하는데 120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그 이후 20년간 ‘CJ시어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는 선례였다. 이에 비하면 IBK챔버홀은 위치도 좋고 조건도 유리했다. 우리 임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실무선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설명회 개최로 일단락되었다.

IBK 이름이 걸린 명품 연주회를 꿈꾸며

내부적으로 후원을 결정한 후, 최종 품의단계에서 후원액을 깎는 협상(?)이 시작되었다. 80억원 보다는 줄었다지만, 후원금 50억원도 부담되는 금액임에 분명했다. 예술의 전당 실무진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어렵게 5억원을 더 깎아 최종 45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은행장은 수고했다고 많은 칭찬해주셨지만, 예술의 전당 본부장 이하 실무선은 줄어든 5억원에 대해 몹시 아쉬워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2010년 6월 9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VIP룸에서 윤용로 행장과 예술의 전당 김장실 사장 등 양사 임원들과 함께 ‘음악당 챔버홀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후 예술의 전당에서는 인사발표가 있었는데,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동혁 음악부장이 임원급인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당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로로 젊은 나이임에도 임원이 되었다고 한다.

성공리에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IBK 챔버홀’ 건립 이후 IBK 명칭이 들어간 정기콘서트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품 콘서트가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 믿는다.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IBK를 기대해본다.

작은 손길, 짧은 시간에도 따스함과 큰 기쁨 느끼는 우리 이웃

이기훈¹⁰⁴⁾

온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우리 주변에는 작은 손길에도 크게 기뻐하는 이웃들이 많다. 사랑의 손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잠시 시간을 내서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 세상은 더 따뜻해지리라 믿는다. 사실 이 원고를 쓰고 있지만 잠시의 시간만 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사실 축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평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활동의 계기를 찾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2000년 어느 날, 하이텔 수화동호회 운영을 맡으면서 장애우들을 많이 만난 것이 내 작은 활동의 시작이 되었다. 당시 하이텔 수화동호회는 후암동에 있는 중증 복합지체 장애우들이 기거하는 ‘영락애니아의집’에서 청소봉사와 식사보조를 시작했다. 근육이 굳어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며 휠체어를 밀어주었던 그 당시를 나는 잊지 못한다. 밥을 떠먹여 줄때 웃음을 터뜨리던 해맑은 눈망울은 지금도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다.

내가 수화동호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갈 때는 아내와 미취학이었던 어린 아들을 대동했다. 그렇게 한 가족 모두가 수화를 배우면서 봉사활동을 했다.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장애우들을 지켜봐서인지 장애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다. 그들을 그저 몸이 좀 불편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 그때부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몸에 밴 듯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아들은 봉사활동을 당연히 여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봉사는 가정의 화목에도 도움을 준다.

기업여신부 직원과 함께 넷째 주 토요일을 기다리며

이후 나는 ‘한사랑마을’ 자원봉사, ‘청각장애인의 집’ 수화봉사 같은 일들을 지속했다. 그러다가 2006년 9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매달 1회 이상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복지관과 제휴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 봉사를 한 것이다. 이후 복지관 사정 때문에 2008년 4월부터 활동이

104) 1991년 9월 입행. 여신관리부 대리, 현재 여신관리부 경매팀 차장

중지되어 다른 곳을 찾아야 했다. 결국 아내가 몇 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 하계동 ‘동천의 집’과 인연을 맺은 것이 2008년 6월의 일이다.

그렇게 시작된 자원봉사는 어느새 2년이 되었다. 이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하는 날이 되었다. ‘동천의 집’은 다운증후군과 자폐증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기업은행의 파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여신관리부 직원들과 함께 동천의 집을 찾아가는 그 시간은 큰 보람을 주고 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차차 마음을 열고 곁으로 다가온다. 여러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특히 14살 민제는 아들처럼 “아빠, 아빠”하면서 찰싹 달라붙어 안기고, 봉사가 끝날 때면 헤어짐을 아쉬워한다.

목욕봉사를 할 때는 ‘동천의 집’ 근처의 사우나를 이용한다. 장애인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대중탕에서 놀이시간도 갖고 간식도 함께 먹으면서 보통의 사람들과 접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때에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배려한다. 대중탕에서 천진난만하게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다.

IBK 하늘색 봉사조끼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놀 때면 ‘은행이 좋은 일 한다’면서 때로는 주인이 삶은 달걀을 갖다 주기도 한다. 주변의 격려 때문에 더더욱 힘이 날 때가 많다. 지금은 ‘동천의집’과 함께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햇살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노력봉사 외에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에도 관심이 있어 2002년에는 대한적십자사에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등록헌혈회원에 가입했고 이후 수차례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유공장(은장)을 수상하였다.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이웃사랑이다.

봉사활동은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

가족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은 가정화목에도 도움이 된다. 아내도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동호회 가운데 하나인 ‘하나 더’ 팀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몇 년째 매주 월요일이 되면 ‘동천의집’에서 노력봉사, 종이접기 교육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노력봉사, 푸드마켓 지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활동이지만 서울시장 표창, 봉사활동 500시간 노원구청장 표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외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나 또한 아내가 휴일봉사 때 동참하여 푸드마켓 지원봉사, 청각장애인 지원봉사 등을 함께 한다. 부부가 함께 활동하다보니 대화도 많아진다. 특히 힘든 일을 나눠 하면서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가 생기고 이해의 폭도 커진다.

봉사활동은 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이 정성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한번이라도 웃음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의 봉사활동은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귀를 소개하고자 한다.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 활동관리 이론과 실제> 중에서 인용)”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을 내밀어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Tip.

- 아가페봉사회 활동 : 매월 1회 이상, 매회 여신관리부 직원 10명 이상 참석
- 2006년 햇살교실(저소득가정 방과 후 교실) 인터넷 컴퓨터 설치 및 매월 인터넷 사용료 지원, 분기 1회씩 문화행사활동 지원(연극관람, 놀이동산 관광 외)
- 2008년 디지털피아노 지원, 2009년 MT 행사비 전액 및 이동차량 지원
- 2009년도 햇살교실 원장으로부터 감사편지 수령(은행장, 여신관리부)
- 2006년 ~2008년 매월 1회 이상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대상자 집 도배봉사, 장판 교체, 시설공사 등 집고치기 봉사활동 참여 및 소요 경비 지원
-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동천의 집(장애우 모임터) 목욕 봉사 및 놀이봉사 장애우 자립생활 배움가정터 설립 기금 후원
- 2009년 행내 CS Boom-Up 페스티벌 사회공헌부분 우수상 수상(여신관리부)
 - 등록헌혈 회원으로 헌혈에도 적극 참여
- 다회 헌혈자로 대한적십자사 유공장(은장) 수상
- 50회 이상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유공장(금장) 수상 예정(2010년)
 - 재직 중 인병으로 퇴직한 직원(유동열 대리)에 대하여 재직 중에는 물론, 인병 퇴직 후에도 계속 병원을 방문하며 격려하는 등 동료애 실천

[제6부. 인사·홍보·문화] Story_20

기업은행 CI 사용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

민병조¹⁰⁵⁾

2007년 1월 4일, 기업은행은 CI를 변경 사용할 것으로 발표하고, 각종 신문 등에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 IBK가 들어가는 CI는 모행인 기업은행만이 아니라 IBK기은캐피탈,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등 자회에게도 모두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IBK에 함축된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I’ : 고객 자신을 의미. 모든 것에 우선하는 바로 ‘나’, 즉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IBK의 철학 상징

‘B’ : 하늘 높이 날면서 먼 곳까지 두루 살피는 큰 새의 날개 상징. 미지의 세계를 향해 무한히 도전하는 기업은행의 도전정신 함축

이러한 개념으로 언론과 매스컴에 홍보를 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인력컨설팅업을 수행하고 있던 (주)아이비케이라는 회사가 기업은행 CI가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인 ‘IBK’와 동일함을 주장했다. 그 회사는 서비스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자신의 서비스표 전체를 거액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었다.

이 회사는 자신의 요구(상표의 양도대가로 98억 원 요구)를 기업은행이 수용하지 않자 다양한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6일 : 가처분

2008년 1월 23일 : 손해배상청구

2008년 3월 3일 : 기업은행 및 은행장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2008년 3월 13일 : 간접강제(매일 5,000만 원 청구)

2009년 1월 22일 : 서비스표 침해금지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표 양도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경영진 면담을 요청했다. 기업은행은 동사의 이러한 요구를 불법행위로 간주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은행이 ‘IBK’ 상표를 먼저 사용했음을 알려나갔다. 기업은행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105) 1991년 입행. 도당동 지점 대리, 여신관리부 과장, 현재 준법지원부 준법지원팀장

2007년 7월 12일 : 서비스표 취소심판

2008년 3월 13일 : 서비스표 무효심판

2008년 3월 28일 : 가처분 이의신청, 상표권가압류 및 대여금소송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가처분취소결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 회사의 청구는 무력화되었고, 결국 서비스표 양수가액,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권고에 따라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2년 6개월에 걸친 기나긴 분쟁이 종결되었다. 기업은행은 그 회사의 서비스표(일부제외)를 양수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표권 분쟁은 언론 등에 자주 개재됨으로써 오히려 대국민들을 상대로 기업은행 CI가 홍보되는 효과도 있었다.

준법지원부 직원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

한편, 준법지원부 직원들은 CI분쟁이 발생하자 기업은행이 20년 먼저 IBK 명칭을 사용했던 관련 자료를 구했다. 각 신문사 및 방송국, 대한농구협회, 대한축구협회 및 야구협회, 각 본부부서와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사료 보관창고에서는 기은사료집, 홍보책자, 20년 분량의 신문기사 등을 모았다. 약 2~3개월에 걸쳐 이를 수작업해서 발췌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대부분 승소하게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패소할 경우에도 미리 대비해야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널기획부와 협의하여 홈페이지의 15,000개 콘텐츠를 수정 작업했다. 아울러 언론홍보 잠정중단 및 리플릿 수거 등을 조기에 조치했다. 동시에 기업은행 고객 및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게끔 지도했다.

법원에서 기업은행 서비스표와 (주)아이비케이의 서비스표가 유사한 점을 지적한 것도 있다. 준법지원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워 법원을 설득했다.

- 기업은행 홈페이지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정보나 산업동향자료, 세무회계정보 등은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다.
- 금융고객 중 기업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종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언론 등에 공기업으로서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홍보부와 협의하면서 정면 돌파했다. 2년 6개월에 걸친 수많은 소송 등 법적분쟁과 협상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심리전에도 많은 배려가 이어지면서 분쟁을 마무리했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준법지원부장, 기은컨설팅센터장, 소송담당차장이 경찰, 검찰에 출석했다. 기업은행은 침해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인 대응진술로 임했다. 그 결과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 분쟁종결과 함께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다.

한편, 법원소송과정에서 재판장 및 주심판사 등에게 기업은행의 선의, 40년의 기은역사, 중소기업지도라는 기업은행의 설립목적 등을 적극 항변·설득했다. 그 결과, 손해청구소송 기각, 간접강제 기각, 형사소송 기소중지, 가처분취소결정, 강제조정으로의 성공적 종료 등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ABS채권 3억5,400만 원 전액 회수, 일부를 제외한 서비스표를 전체 양수함으로서 일자리창출추진 등 상표를 기업은행이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액의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대한민국 최대의 상표권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에는 증거자료 수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준법지원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창립50주년 특별 원고]

한국의 중소기업과 IBK기업은행

- 위기 때 더 빛났던 기업은행 반세기, 세계에도 유례가 없다 -

조병선¹⁰⁶⁾

중소기업의 믿음직한 동반자 기업은행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고 기업가정신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에게 자아 실현의 장(場)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活力있는 多數(the vital majority)’로서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막대하다. 사업체 수에서는 99.9%를, 전체 고용에서는 88%를, 그리고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여율에서는 전체의 절반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한 중소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과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대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지난 50년을 동행하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된 은행이 바로 기업은행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1961년에,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서 최초로 출범한 것이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하루 같이 중소기업 문제를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자금공급 파이프라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IBK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중소기업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IBK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

기업은행 반세기 역사는 국가경제발전과 그 궤도를 함께 해왔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금융계의 큰 나무로 성장한 것이다. 그 이유는 독특한 기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소유구조에 있다.

기업은행은 상장기업으로서 일반 상업금융 업무 전반을 취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금융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자금지원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정보, 인력,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기업은행 시스템이 선진형 금융기관에 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출범 이후 반세기 동안 양적인 측면은

106) 1972년~2009년 근무, 독일 쾰른대 ‘한국과 독일의 은행감독 업무’로 박사 취득, 전략기획팀장, 조사부장, 경제연구소장 등 역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자문위원,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중소기업금융을 선도해온 명실상부한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 그것이 바로 기업은행의 위상이다.

세계 각국의 은행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은행의 발전상을 살펴보자.

-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된 반관반민 국책은행의 역할 수행
- 감독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받으면서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기능 수행
- 자산 규모 200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은행으로 성장

물론 일본과 독일 등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정부 주도의 금융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은행과 성격이 다르다. 재정자금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온 렌딩(on lending) 형식 중심으로 지원하는 금융공고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처럼 일반인들의 예금을 통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지도 않고, 이를 직접 중소기업에 대출하지도 않는다.

기업은행의 모델이 독특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 정부가 대주주로서 은행장을 대통령이 임명
-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 민간 금융회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부분의 운용재원조달

필자는 기업은행 전략기획팀과 조사부, 경제연구소에 오랜 기간 근무한 바 있다. 재직중 선진국의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공부했지만 기업은행처럼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은 찾지 못했다. 역동성이 있는 은행, 활력이 넘치는 은행 또한 발견 못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은행 IBK

해외 여러 나라들은 기업은행의 역할과 발전과정, 성장요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그들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 국회의원, 중소기업 정책입안자, 금융기관 종사자, 중소기업 관련학자들은 직접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상황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의 정부기관, 학술단체, 금융기관 등이 직접 기업은행 관계자들을 초빙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금융, 기업은행을 소개하기 위해 초청받은 경우만 10여 회가 넘을 정도다. 국제회의의 초청도 상당히 많다.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함된 국제회의나 컨퍼런스에서도 IBK의 성장과정, 리스크관리기법 등의 사항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 국제

컨퍼런스'다. 일본금융청이 주관한 이 대회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여 '한국의 중소기업과 기업은행'을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은 기업은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다. 주최국인 일본 참석자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2009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중소기업연구자대회(ICBS)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SME Financing in Korea and IBK'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자 한 시간에 걸친 질문공세가 이어질 정도였다. 동남아,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를 비롯,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대표들의 관심은 그만큼 컸다. 실제로 다수의 참석자들은 빈 좌석을 찾지 못해 긴 시간 동안 선 채로 발표를 들어야 했다.

이러한 경우는 셀 수가 없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초청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금융'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베트남 정부 인사와 중앙은행 간부 및 중소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관심은 마찬가지였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금융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도 어떻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건실한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기업은행의 다양하고도 특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것이 세계가 찬사와 함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쉽게 태어나지만, 또한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 신용도가 높은 것도 아니며 담보 또한 미흡하다. 거기에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차주의 신용도에 걸맞은 금리도 적용하기 어렵다. 보유자본도 미흡하여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손율이 가계대출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BK의 성과를 보며 세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분야에서 차별화된 노하우,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은 가족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위기 때 더 큰 진가를 발휘하는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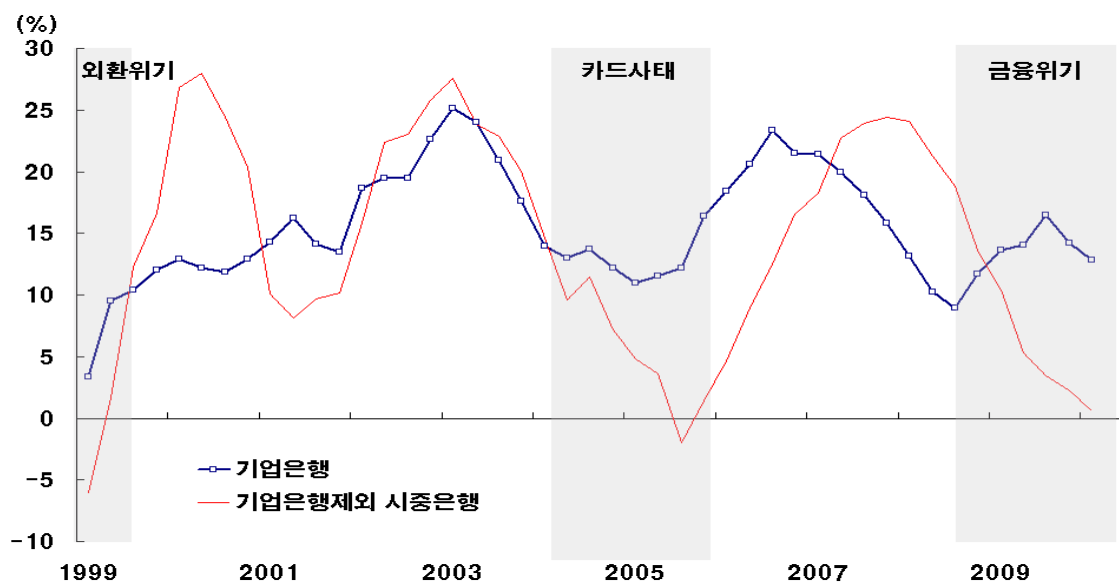
그간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도 많은 부침이 있었다. 그 속에서 기업은행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이 또한 기업은행만의 장점이자, 놀라운 성장 비결 가운데 하나기도 하다.

일반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순응적' 자금공급 행태를 유지한다. 호황기에는 자금공급을 확대하다가도, 정작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필요한 경기하강기에는 오히려 공급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업은행은 이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른바 '경기 조절적' 기능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호경기에는 지원규모를 조절해서 리

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7년 IMF외환위기, 2000년대 중반 무렵의 카드대란,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다. 국민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신용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경영안정의 효과를, 사회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처럼 차별화된 사업전략은 고객과 주주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우량고객 확보도 가능했다. 은행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도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기업은행의 차별화된 자금공급은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지원해온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주주인 정부도 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제 위기상황이 다가와도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온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중소기업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온 것이다.

태생적 한계를 이겨내다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성원의 힘이다. 수많은 선배들의 노력과 금융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체 기은가족의 창의와 열정, 도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기업은행은 예산, 조직, 인력 운용, 재원 조달과 배분, 사업영역 등 각종 측면에서 차별과 규제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때마다 서로들 힘과 지혜를 모아 장벽을 넘어왔다. 경쟁기반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음 두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첫째는 중소기업 금융에서 가계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2000년대부터는 은행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균형성장을 도모했는데, 이는 기업은행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임에 분명했다. 가계금융의 역량을 확충하게 되면 중소기업 금융도 더 강해진다. 두 부문간의 균형성장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둘째는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은행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가야할 길

금융산업은 발전가능성도 큰 반면 리스크 또한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주력인 중소기업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기업은행은 지난 반세기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의 핵심역량인 중소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계금융에도 강한 은행으로 만들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민영화 방안도 곧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은행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어야 한다. 기은가족들의 인식과 역량을 자산규모 200조 원 시대를 열어가는 대형 선진은행에 걸맞게 새롭게 해나가야 한다. 일하는 방법도 더 스마트해져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과거의 성공경험이 내일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강한 조직, 경쟁력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류은행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수행이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는 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재를 키우고 고객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은행이 되기 위한 노력, 이것은 은행의 100년 대계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창립50주년 특별 원고]

100년 미래를 세우는 힘 - 기업은행 50년 축시 -

신달자

나라 참 가난하고 사방 어둠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작은 지붕을 위로 삼아 공장이 돌고 사람들이 땀 흘릴 때
햇살처럼 우뚝 솟은 말 “기업”이라는 빛
기업이라는 말에 힘이 오르고 힘이 오르고
거기 기업은행은 탄생했다

나라에 힘이 오르고 힘이 오르고
기업들이 큰 지붕으로 우뚝 서고
대한민국의 희망에 집어등 같은 붉은 등이 켜졌다
나라가 환해졌다. 어둠이 물러서기 시작했다
교육이 자라고 인간이 자라고 나라가 세상 밖에서도
변쩍 빛났다, 거기 기업은행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고
사람들이 거기 희망을 보고
사람들이 든든한 반석을 얻고
사람들이 땀의 선물을 약속받는 마음의 안식처
나라의 기둥을 세웠느니

경제위기가 파도를 치고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서성이고
비 바람은 무섭고 폭설이 지붕을 내려 앉힐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
믿음과 정 깊은 신뢰의 두 팔로 고객을 지키는
고객을 모시는 기업은행이 있었다

책임과 뜨거운 열정과 창조적인 정신을 모아 모아
 사랑으로 실천하는 정신을 모아 모아
 온 몸으로 기업을 사람을 나라를 품고 땀 흘리며
 내가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내가 아니면 사람은 없다라는
 눈물과 봉사와 도전의 극복을
 스스로 외치는 외로움 속에도 기업은행이 있었다
 아 아 50년!
 아 아 50년!
 단 한명의 고객을 천명의 고객답게 모시는 기업
 대한민국의 더 높은 희망으로
 앞으로 100년 앞으로 200년
 1만여 IBK직원들이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사람을 행복과 웃음으로 아침을 맞게
 오늘도 한 단계 뛰어 넘으며
 열정의 가슴으로 외치는 기업은행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시 탄생합니다
 오늘도 다시 세계를 열어 갑니다
 오늘도 다시 한국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대한민국 희망의 대명사 기업은행이여!

*본 축시는 2011년 8월 1일 IBK50주년 리셉션에서 신달자¹⁰⁷⁾ 시인이 직접 낭독, 감동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음.

107) 시인. 現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現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現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회 위원. 1965년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1980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1992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

IBK

신
한
조
의
가
정